

데이터 뉴스 Data News

평균 업력 3년 미만 업종

(업종)	(평균 업력)
1 당구장	1년 7개월
2 안마시술소	1년 11개월
3 커피전문점	2년
4 맥북이전전문점	2년
5 발/네일케어	2년 2개월
6 동남아음식전문점	2년 2개월
7 샌드위치전문점	2년 3개월
8 스포츠센터	2년 4개월
9 뷔페	2년 6개월
9 요가/단식원	2년 6개월

전국 카페 점포 수 추이



‘창업자 선호 1순위’ 커피전문점, 평균 2년내 문닫는다

자영업에 새로 뛰어드는 사람들이 커피전문점 창업을 가장 선호하는 가운데 커피전문점은 평균 2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나이스비즈맵 상권분석서비스가 올 1분기까지 음식·소매·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로드숍 업종 200여 개를 대상으로 3년 미만 업종을 분석한 결과 커피전문점은 평균 2년 동안 점포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당구장은 1년 7개월로 가장 짧았다. 안마시술소가 1년 11개월로 그 뒤를 이었다. 주점과 양식 업종도 평균 3년 안에 문을 닫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균 3년 미만의 업력을 지닌 업종들이 트렌드에 민감하고 다른 점포와의 차별성을 두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인테리어나 깔끔한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진 데다 당구장, 스포츠센터, 스크린골프장 등도 새로운 시설을 갖춘 곳이 인기가 높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10개 업종별 사업자 현황 (단위: 천명, 2015년 기준)

도·소매업	1	1491	-22.2%
부동산임대업	2	1452	-21.7%
서비스업	3	1255	-18.7%
음식업	4	708	-10.6%
운수·창고·통신업	5	576	-8.6%
제조업	6	562	-8.4%
건설업	7	418	-6.2%
농림어업	8	78	-1.2%
대리중개도급업	9	64	-1.0%
기타	10	98	-1.5%

※ 출처: 국세통계연보

총계 6702

부동산 활황에 부동산임대업, 1위 도·소매업 ‘턱밑추격’

부동산 임대업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부동산 임대업자는 145만 2000명으로, 도·소매업(149만 1000명)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전체 사업자 가운데 점유율은 21.7%로, 도·소매업자보다 불과 0.5%포인트 작다.

부동산 임대업자는 2006년 88만 2000명에 불과했지만 2007년 99만 3000명, 2008년 107만 6000명을 거쳐, 2012년 120만 명(122만 4000명)을 돌파한 후 2014년 130만 명(134만 명), 2015년 140만 명대를 차지했다.

반면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던 도·소매업자의 증가세는 완만해지고 있다. 도·소매업자는 2006년 121만 4000명에서 2015년까지 22.8%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동산 경기 호황이 최근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현재 추세대로라면 지난해 사업자 수에서 부동산 임대업자가 도·소매업자를 추월했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전체 사업자 수는 670만 2000명이며, 도·소매업과 부동산 임대업에 이어 3위는 서비스업 사업자(125만 5000명, 18.7%)가 차지했다.

김면수 기자 tearand76@

주식부호 100인, 앓은 자리서 20조 벌었다

〈연초 이후 주식평가 증가액〉

코스피 랠리로 ‘돈방석’

올 들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면서 국내 상장사 100대 주식부호들의 주식 평가액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이진희·이재용 부자는 반년 만에 4조 원이 늘어났고, 지난달 성장한 넷마블의 방준혁 이사회 의장은 3조 원이 넘는 평가액이 발생해 주식부호 6위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22일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 상장사 주식 보유 상위 100명의 주식 재산은 전월 증가 기준 113조 26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1월 2일) 대비 19조 8554억 원(21.3%)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코스피 증가는 1월 2일 2026.16에서 6월 21일 2357.53으로 16.3% 상승했다.

주가가 연초 대비 31.5% 상승한 삼성전자의 이진희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 가치는 17조 3100억 원으로 지난 6개월여간 3조 440억 원(21.3%) 뛰었다. 이재용 부회장의 주식 가치는 7조 5158억 원으로, 8561억 원(12.9%) 늘었다. 또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의 주식 재산은 2조 5712억 원을 기록해 613억 원(31.5%)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각각 1조 7304억 원의 상장사 주식을 보

유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

물산 사장의 주식 가치는 올 들어 1359억

원(7.9%) 늘어, 이들은 1조 8663억 원씩을 보

유하게 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 평가 가치는 3조 7903억 원에서 4조 5236억 원으로 7333억 원(19.3%) 늘었다. 동생인 최가원 씨의 보유액도 1조 4411억 원으로 2336억 원 증가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현대중공업의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주식 평가 가치가 연초 대비 5820억 원(51.1%) 늘어난 1조 7204억 원을 기록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주식 재산은 1조 2974억 원에서 1조 7103억 원으로 4129억 원(31.8%) 늘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1조 1885억 원에서 1조 5846억 원으로 3961억

원(33.3%) 뛰었다. LG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LG전자가 올해 ‘8만 전자’ 시대를 연 것이 평가 가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올 들어 주식 평가 가치가 가장 많이 늘어난 주식부호는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 의장이다. 방 의장은 지난달 코스피에 상장한 넷마블게임즈의 지분 24.47%를 쥐고 있다. 연초 294억 원이던 평가 가치는 현재 3조 2120억 원으로 불어났다.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의 주식 평가 가치는 연초보다 7520억 원(65.7%) 늘어난 1조 8963억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술 수출 계약 파기 건으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입은 손해를 회복한 셈이다. 잇츠한불 임병철 회장은 연초 1035억 원이던 주식 가치가 3442억 원으로 232.6% 늘었다. 허재명 일진머티리얼즈 사장(124.2%), 문은상 신라젠 대표(77.2%),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9%) 등도 증가폭이 컸다.

반면, 현대차가 실적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주식 가치는 4조 8785억 원에서 4조 8376억 원으로 0.8% 감소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이 가진 주식도 2조 5039억 원에서 2조 4779억 원으로 가치가 1.0% 떨어졌다. 신동주 에스디제이 회장의 보유 주식 가치는 1조 855억 원에서 9460억 원으로 12.8% 쪼그라들었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내 증시 상장사 주식 보유 상위 10명 주식재산

(단위: 조 원, %)

순위	성명/직책	6월 21일	1월 2일	증감률
1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	17.3	14.3	21.3
2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	7.9	7.4	6.8
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7.5	6.7	12.9
4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4.8	4.9	-0.8
5	최태원 SK그룹 회장	4.5	3.8	19.3
6	방준혁 넷마블게임즈 이사회의장	3.2	0.0	신규
7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	2.6	2.0	31.5
8	이재현 CJ그룹 회장	2.6	2.4	6.7
9	정의선 현대자동차 부회장	2.5	2.5	-1.0
10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	1.9	1.1	65.7

※ 출처: 재벌닷컴

대선 후원금 ‘錢의 전쟁’서도… 문재인 ‘14억’ 勝 vs 안철수 ‘2억’ 꼴찌

심상정 ‘고액’ 없이 ‘개미후원’ 15억 1위

‘TV토론 강자’ 바른정당 유승민 3위

고액후원자 많았던 홍준표, 3억 모아

19대 대선 본선 후원금 (단위: 원)

더불어민주	문재인	13억7609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3억2044만
국민의당	안철수	2억2191만
바른정당	유승민	8억9013만
정의당	심상정	14억9763만

속 치과의사, 변수석 사곡양돈단지 대표, 홍 전 지사가 지사 시절 임명했던 람사르환경재단 대표를 지낸 고재운 씨 등이다.

안철수 전 대표는 2억 2191만 원으로, 후원금 모금에선 5명 중 꼴찌였다.

1000만 원씩 보탬 고액 후원자는 6명으로, 2012년 대선에서도 후원했던 권치중 대표를 비롯해 안랩 인사가 절반 이상이다.

유승민 의원은 8억 9013만 원을 모았다. 박인숙 의원과 뒤늦게 유 의원 지지를 선언하며 입당한 지상욱 의원 그리고 김경화

마인애플 대표, 송방차량 유니코정밀화학 대표, 박민철 한국고서협회 회장, 이재원 화인피부과 원장이 각각 1000만 원을 냈다.

특히 바른정당에 몸담았던 의원 13명이 탈당과 함께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지지를 선언한 5월 2일 이후 후원자가 대거 몰렸다. 이들의 탈당 선언에 앞선 2~3일간 하루 30~50건 수준이던 후원은 5월 2일 800건에 근접하더니 3일과 4일엔 하루 2200건 이상으로 폭증했다. 5월 1일 3억 원에 조금 못 미치던 후원금은 사흘 지나 7억 원 가까이로 불었다.

심상정 대표는 득표율에선 5위를 했지만 후원금에선 1위였다. 심 대표는 14억 9763만 원을 후원받았는데, 고액 후원자는 한 명도 없었다는 게 특징이다. 대선 ‘개미’후원이 이어지면서, 5월 9일 선거일에도 1만 건에 육박하는 후원이 쏟아졌다.

김미영 기자 bomnal@

www.kepcoco.kr

에너지에서 모든 미래

에너지신산업

전 세계를 하나로 잇는 ‘KEPCO글로벌에너지벨트’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이뤄갑니다!

해위수출 파트너십(KEPCO Trusted Partner) 제도 국내 공기업 최초로 도입

기술력은 있으나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에게 수출 보증 제도

한국전력공사

現實的 한계 봉착, 김빠진 ‘개혁 사이다’

국민 목소리 이행하려 했지만... 속도조절 나선 文정부

이용섭 일자리위원장 “비정규직, 노사합의로… 정부, 가이드라인만 제시”
국정기획위 “원자력발전소 안전성·비용부터 따져보자” 脫원전도 후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4일째를 맞은 가운데 당초 대선 공약을 정책으로 현실화시키려 했지만 현실적 한계에 부딪혀 유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용섭 국가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필요하고 불가피한 비정규직도 있다”며 “정부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자는 건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출산·육아휴직 대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꼽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선언도 상시·지속 업무와 안전 업무는 원칙적으로 정규직으로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규직 전환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건 노사 합의로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문 정부가 공약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일보 후퇴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정부는 비정규직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5월 1일 노동절에는 “2016년 32%가 넘는 비정규직 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장기적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월 1만1000원 수준인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공약도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2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 자율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경감 대책을 4차례나 보고 받았다. 자신들이 원하는 통신 기본료 폐지가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부가 이행 의지가 없다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결국 업

계의 반발 등을 고려해 장기적 검토 과제로 돌렸다.

애초부터 기본료 폐지 정책이 무리한 공약이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2015년도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은 OECD 국가 평균 대비 15~40% 정도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22일 여당과 함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하는데 휴대전화 요금할인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이 담길 예정이다.

원자력발전소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탈원전 정책도 재논의되고 있다. 문 정부는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신규 원전 전면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 즉각 폐쇄,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는 이달 초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원전 관련 부처들을 불러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원전 5호기와 6호기는 안전성과 매몰비용 등을 검토하고 나서, 공사 중단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19일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
포식 행사에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
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
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건설 중단 가능성
을 시사했다.

아직 공사 중단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만큼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 중이다. 5·6호기의 공적률은 5월 말 기준 이미 28.8%를 달성했다. 5호기 보조 건물과 원자로 건물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는 마무리된 상태다.



참여연대, 소비자연맹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9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 앞에서 통신료 인하 시위를 하
고 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중단할 경우 매몰비용만 수조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들어간 공사비만 1조5200억 원이다. 박명우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투입된 공사비와 계약 해지에 따른 보상비 2조5000억 원 △지역 상생 지원금 집행 중단 1500억 원 △지역 건설경기 위축과 민원 발생 비용 2700억 원 △법정지원금 1조 원 △지리상세수 감소 2조2000억 원 등 총 6조 원가량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

곽도흔 기자 sogood@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과 박병원 경총 회장이 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일자리위원회 위촉장 수여식에 앞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조, 내일 4大그룹 수뇌부와 탐색전

13년 만에 '공정위원장-4대그룹' 회동 재벌개혁 공약 설명… 재계 '우려' 전달

김성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만날 4대 그룹 중 삼성을 제외한 3대 그룹 경영진 명단이 확정됐다. 다만, 삼성은 그룹 해체 이후 삼성전자 경영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누가 참석할지는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

22일 공정위와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 위원장과 4대그룹 간 정책간담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의 20층 챔버라운지에서 진행된다. 이번 4대 그룹의 참석자는 총수가 아닌 최고위급 전문경영인이다.

현대자동차그룹에서는 대외 업무를 담당하는 정진행 현대차 사장이 참석한다. SK그룹은 그룹 컨트론타워인 수펙스추구협의회의 대외 창구인 커뮤니케이션지원장을 맡은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나온다. LG그룹은 지주회사인 ㈜LG의 대표 이사인 하현희 사장이 참석하기로 했다.

삼성은 참석자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삼성은 그룹이 해체되면서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의 경영진을 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참

‘통신 기본료 廢止’ 업계 반발로 무산

국정기획위, 요금 할인을 25%로 상향·공공 와이파이 확대하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통신업계의 반발로 무산됐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위)는 22일 요급 할인과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담은 통신비 인하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통신 기본료 폐지'는 업계의 반발에 밀려 후퇴하는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을 확대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이날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와 국정위, 통신연계 등에 따르면 최종 인허가는 휴대전화 선택약정 할인율을 종전 20%에서 25%로 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여가, 교통 3종의 공공용 외의파워 화웨이, 해외적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기본료의 제한적 폐지보다는 25% 요금할인이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는 더 클 것"이라며 "다만 선택약정 요금제를 쓰지 않는 취약계층에 한해 기본료 1만1000원 폐지 수준에 준하는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가입자의 84%를 차지하는 4G(LTE) 가입자를 위해 할인율을 확대하고 2G와 3G 가입자에게는 기본료 폐지에 맞먹는 혜택을 주겠다는 게 국정위와 미래부의 해석이다. 공공 와이파이기는 정부가 직접 구축에 나서서 한

편 이동통신 3사의 와이파이 개방률을 늘리는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도 마련한다. 국정위는 300MB를 기본 제공하는 현행 3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보다 1만 원 이상 저렴한 2만 원대에 데이터 1GB를 기본 제공하는 방식을 잠정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정위의 결정으로 불거질 대로 불거진 통신료 인하 논란이 잠잠해질지는 미지수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새 정부의 통신공약이 한발 물러났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시민사회단체는 이 할인요율 30%를 올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안을 읽어내면 고시료 상향 조항할 수 있는 수준은 25%가 최대치로 알려졌다.

통신업계는 업계대로 “일률적인 할인을 확대하는 ‘단통법’의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 흘러나오고 있다.

KT관계자는 “요금 할인율이 25%까지 확대
되면 손실액이 연간 5000억 원(추정)에 달하
는데 이런 너무 무리한 요구”라면서 “통신
비가 제조사 부가서비스까지 포함돼 있는데
단말기 제조사는 쏙 빼고 요금할인 부담을 통
신사에만 떠넘기는 것으로 불공평한 처사”라
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김준형 기자 junior@

한국인의 true friend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6-05190호 (2016-10-12 ~ 2017-10-11)

[헤 아 리 다]

고객의 마음이 되어봅니다
금융의 깊이를 더해갑니다

깊은 맛과 향을 우려내려면
알맞은 온도를 알아야 하는 것처럼
금융에 깊이를 더하는 일은
고객을 이해하려는 마음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고객을 향한 바른 마음가짐으로
한국투자증권은 금융의 바른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국회에 발목 잡힌 ‘일자리 100일 플랜’

文 “8월까지 정책 로드맵 마련”
새 정부 최우선 과제 사활 불구
청년구직수당 등 추경 전제돼야
與野 불협치에 ‘제자리걸음’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행보에 다시 금 시동을 걸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8번째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공공부문 도입 및 민간영역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채용 문화의 긍정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스펙 없는 이력서’를 통한 블라인드 채용 법제화를 공약한 바 있다. 공공 부문에서 법으로 강제한 뒤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대통령은 전날에는 ‘1호 업무지시 사항’인 일자리위원회 본격 가동을 위해 첫 회의를 주재, 운영세칙을 정하고 노동계가 포함된 민간위원 인선까지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8월 말까지 일자리 정책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정, 세제, 금융,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일자리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세종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달, 인허가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고용영향평가 및 정부·공공기관 평가 등 일하는 방식까지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일자리 문제에 사활을 걸어왔지만 정작 정책을 뒷받침할 실탄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정부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맞춰 하나씩 실행해가는 ‘일자리 100일 플랜’의 13대 과제 중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 구직수당 신설, 육아휴

직 급여인상, 노인 일자리사업 수당 확대 등의 시행은 일자리 추경의 통과가 전제조건이다. 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실현되려면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처리해 줘야 한다.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21일 원내 지도부 회동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포함한 국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상화하기로 했지만 일자리 추경 심의를 놓고는 아직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담담회에서 “일자리 정책은 정부만 노력해서는 성과를 거

둘 수 없고, 국회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국회에서 일자리 추경안과 근로시간 단축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행정해석으로도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시행 시기를 늦추는 등의 보완장치 없이 바로 시행한다”며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 처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국회 정상화 합의한 與野, 추경은 여전히 이견

4당 원내대표 국회 회동으로

교착상태 ‘인사정국’ 해소 분위기

한국당 “세 가지 조건 충족 못해”
국민의당·바른정당은 “심사판”

여야가 문재인 정부 조각을 위한 인사 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외교부 장관 임명에 야당이 반발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인사(人事) 정국’의 난맥이 풀리는 분위기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착수 여부를 두고 각 당이 이견을 나타내고 있어 7월 임시국회를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에는 △인사청문제도 개선을 위한 소위 구성 △야 3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인정 증인출석 민주당 적극 협조 △7월 임시국회에서 운영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 △추경 계속 논의의 △여·야·정 협의체 운영 △특위 6개 설치(개헌특위·정치개혁특위·사법개혁·미세먼지·평창특위·4차산업)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여야가 합의문을 채택해 국회 정상화가 임박했지만 추경에 대한 논의는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원내대표는 “저희는 이번 추경이 세 가지 조건

에 모두 해당하지 않아 심의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내용 면에서도 세금으로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이 법적 요건은 충족하지 못했지만 심사 자체엔 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윤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회의를 열고 심의를 해서 반대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또, 정부의 의견도 듣고, 여론도 듣고, 그렇게 해서 협의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서 “반대할 수는 있지만 회의를 열어놓고 회의장 안에서, 국회 안에서 논의하고 위원회 안에서 논의하면, 얼마든지 합의점에 이를 수 있

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도 자신들이 너무 지나치게 반대를 하면 역풍이 불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추경에 협조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현미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민의당의 도움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부위원회는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서의 채택을 시도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후보자와 한승희 국제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광호 기자 khlee@

“원자력 행정, 부처 중복… 일원화해야”

‘이용’ 산업부·R&D 미래부
‘규제’ 원안위로 혼재돼 있어

문재인 대통령의 ‘탈(脫)핵 선언’으로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하면서 현재 부처별 중복돼 있는 원자력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원자력 행정 업무는 크게 원자력을 이용하는 산업담당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R&D) 업무를 진행하는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산업 규제를 담당하는 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로 나뉘어져 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를 계기로 원전 해체와 안전관리 분야 연구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가운데 원자력 이용·진흥-R&D 업무를 산업부와 미래부가 나뉘어 맡고 있는 것에 대해 원자력 관련 행정 체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정의행동 이현식 대표는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진흥과 규제도 단순화돼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지

속적인 혼란을 일으켜왔다”며 “각 부처별로 중복되는 예산의 비효율성을 막고, 통합적인 규제책을 위해서 진흥과 규제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 산업계에서는 원자력 관련 R&D를 산업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원자력 연구개발기금과 전력기금의 중복 문제도 해결 과제다. 기존 원자력 진흥법에 기반한 원자력연구개발기금(현재는 원자력기금으로 통합)은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진흥하기 위한 용도로 마련된 기금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자력에너지 진흥과 R&D 기금은 전기요금의 3.7%씩 징수하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서도 이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관계자는 “기금 사이의 중복과 유사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원자력 진흥 R&D 관련 기금을 하나로 통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엘리 기자 ellee@

태국産 계란 수입…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

매주 200만개 제빵업체·식당 공급

태국산 계란이 한국에 첫 수입됐다. 정부가 기대한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전날 태국산 계란 샘플 2000여 개가 인천 공항에 들어왔다. 판매용 계란 약 200만 개는 이날 선박을 통해 부산항으로 도착한다. 이번에 태국산 계란을 수입한 계란을 국내 민간업체는 앞으로 매주 200만~230만 개의 태국산 계란을 들여올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폭등한 국내 계란값을 어느 정도 진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업체는 수입한 계란을 주로 상업용으로 공급해, 일반 소비자가 가정용으로 구매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매주 200만 개 수입은 국내 계란 소비량이 하루 평균 3000만~4000만 개인 데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초 미국산 계란을 처음 수입했을 때는 정부 시그널에 업자들이 비축한 물량을 시장에 풀어 효과를 봤지만,



21일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화물터미널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직원들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계란 파동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수입한 태국산 계란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이제는 일시적인 방편이라는 학습효과가 생겼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전날 집계한 계란 평균 소매가는 특란 30개 기준 7997원으로 하루 전보다 30원 올랐다.

이정필 기자 roman@

국제유가 하락에… 물가채 발행 ‘뚝’

이달 540억 그쳐 2년5개월來 최저
전문딜러 의무수량제 폐지도 영향

국고채 10년 물가연동국고채 발행이 2년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부도 물가채 활성화 방안을 검토 중이나 고민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달 물가채 발행물량은 540억 원에 그쳤다. 전액 국고채전문딜러와 예비딜러(PD·PPD) 인수 물량으로 개인 및 금융기관, 기타 법인을 포함한 일반인 물량은 없었다. 이는 2015년 1월 500억 원 인수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PD와 PPD 최대인수물량 4470억 원과 비교해도 불과 12.1%에 그쳤다. 역시 2015년 1월(9.8%) 이후 가장 저조했다. 이는 국제유가가 최근 급락하면서 소비자물가(CPI)도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20일 현재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는 배럴당 43달러까지 떨어지며 지난해 11월 14일(42.26달러) 이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국내 물가에 영향이 큰 두바이유도 45.49달러에 머물

고 있는 중이다.

채권시장 참여자들은 물가채가 잘 유통되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일할 부진 요인으로 꼽았다. PD 입장에서는 물량 인수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셈이다. 또, 기재부가 PD와 PPD의 요구를 수용해 지난달부터 이들의 의무수량제도를 폐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이 같은 부진에 정부는 애써 의미를 두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아울러 물가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시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노력 중이지만, 사실상 뚝뚝한 묘안이 없다는 속내도 내비쳤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가채가 3조 원 가까이 발행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입찰 결과는) 보기에 따라 다르다. 물가채 개편 방안을 마련하면서 PD 평가에서 제외했고(그런 와중에도) 지난달엔 발행이 무난했다”며 “이달 발행 결과도 감안해서(개편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다만 시장 수요와 상황을 보는 차원으로 아직 정하지 못했다. 한 항목을 시장에서 발당(활성화)하는 것이라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대출금리 0.5%P 오르면 가계부채 4.7조 ↑

고위험가구는 8000가구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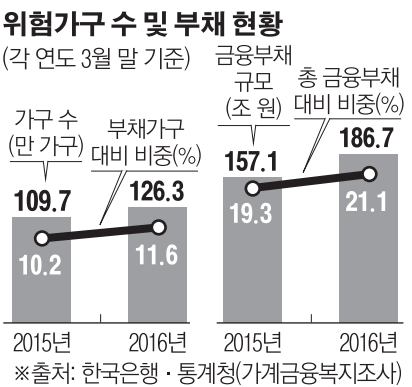
대출금리가 조금만 올라도 고위험가구의 증가폭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 미국 연준(Fed)의 금리인상이 계속되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약가구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셈이다.

22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각각 50bp(1bp=0.01%포인트), 100bp, 150bp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는 지난해보다 각각 8000가구, 2만5000가구, 6만 가구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가구의 금융부채 규모도 작년 대비 각각 4조7000억 원, 9조2000억 원, 14조6000억 원씩 늘었다.

고위험가구란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40%를 넘어 원리금 상환부담이 크고, 자산평가액 대비 부채비율(DTA)이 100%를 넘어 부채상환능력도 취약한 가구를 말한다. 위험가구란 DSR과 DTA를 고려한 부실위험지수(HDRI)가 100을 초과하는 가구를 의미한다.

지난해 기준 고위험가구는 31만5000가구로 62조 원의 금융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부채가구 대



비 각각 2.9%와 7.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위험가구는 126만3000가구로 부채가구의 11.6%를 차지했다. 이들의 금융부채 규모는 186조7000억 원으로 총 금융부채의 21.1%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대출금리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할 경우 고위험가구 수 및 부채가 비교적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높아질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반적인 채무상환능력은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실제로 3월 말 현재 가계부채 규모는 1359조7000억 원에 달해 전년 말(1342조5000억 원)보다 1.3% 증가했지만,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3.3%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기 때문이다.

김남현 기자 kimnh21c@

싼타페 등 38개 차종 40만대 리콜

국토부, 디젤차량 제작결함 발견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싼타페(DM)와 맥스쿠루즈(NC), 마세라티 기블리 디젤 등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총 38개 차종, 40만3128대를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 싼타페, 맥스쿠루즈 차종 39만4438대는 엔진룸 덮개에 달린 잠금장치 부품에 이물질이 유입돼 부식이 일어날 수 있고, 이에 따라 엔진룸 덮개가 주행시 열릴 가능성이 확인됐다.

마세라티 가블리 디젤 등 16개 차종 3848대에서는 운전석 밑의 전기배선기 다른 부품과 마찰돼 끊어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또 마세라티 쿼트로포르테 등 4개 차종 744대에서는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포드 토러스 등 2개 차종의 경우 연료공급 펌프를 제어하는 전자회로 불량으로 리콜된다. 대상은 포드토러스, 링컨 mks 2개 차종 304대다.

링컨 컨티넨탈 차종 296대는 에어백이 사고 시 완전히 팽창하지 않아 운전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는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국토부는 매출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볼모터스 푸조 308 등 총 3개 차종에서는 현가장치 불량으로 인한 소음발생, 방향제어 불량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한국닛산의 인피니티 FX35 등 4개 차종 2471대, 포드세일즈 서비스코리아의 포드 머스탱 차종 429대 등에서는 에어백 작동 시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인한 상태 가능성이, 할리데이비슨 FLHX5 모델 등 4개 차종이륜자동차 391대는 엔진오일의 냉각기능 불량으로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곽도훈 기자 sogood@

‘실손보험료 인하’ 메스 든 국정기획추진

연내 건강보험·민간의료 연계법 제정
건보 반사이익만큼 민간보험 인하 유도

정부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나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 연계법(가칭)’을 연내 제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박광은 국정기획위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보험료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4차례 협의를 거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반사이익만큼 민간 실손보험료를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 가입으로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건강보험 급여 지출 증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에 따르면 민간보험 가입자의 건보 급여 추가 지출은 연간 5970억 원 정도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 제정이 민간 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줄여주는 반사이익으로 누수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보사연은 2013~17년 5년간 1조5000억원의 반사이익이 민간 보험사들에 돌아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런데도 지난해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는 손해를 발생을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각각 19.3%, 17.8% 인상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손해를 산정방식을 표준화하고 공·사 의료보험 상호작용, 비급여 의료실태, 실손 손해율 현황 등을 산출 및 검증한다.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실손보험료 조정폭 규제도 강화된다. 2018년 폐지 예정이던 조정폭 규제는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실손보험을 필요로 하는 유병자, 노령층들이 가입을 제한당하지 않도록 하고 기존 다른 보험 상품에 실손 보험을 끼워 파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내 일자리 어디에...”



2017 중·장년 일자리박람회가 21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열린 가운데 구직자가 면접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고양시통합일자리센터, 고양노동지청, 고양상공회의소 등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박람회는 현진아트, 현대자동차 고양서비스센터 등 지역 내 30여 개 강소기업이 참여해 250여 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도근 기자 foto@

‘가맹점에 甲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檢 ‘공정거래법 위반’...수십억 부당이득 혐의

검찰이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것으로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MPK그룹)를 21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제조사부(부장 이준식)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스터피자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본사와 관계사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가맹점에 피자 재료인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K그룹 정우현(69) 회장의 친인척이 관여한 압제를 끼워넣는 방식으로 정상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치즈를 공급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중간업체가 매년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또 광고비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 지침과 달리 90% 이상을 점주들이 부

담게 하는 등 가맹점들에 각종 부담을 떠넘겨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미스터피자는 가맹점주들과 상생 협약을 맺고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미스터피자는 본사의 횡포를 비판하며 프랜차이즈 계약을 해지한 탈퇴 점주들의 가게 인근에 세 점포를 내서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을 하기도 했다. 세 점포는 전국의 미스터피자 가맹점 가운데서도 가장 싼 수준의 가격에 피자를 팔았고, 피자를 사면 돈가스를 공짜로 주는 식으로 영업을 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가 탈퇴 점주들이 피자 원료인 치즈나 소스를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료 생산 업체들을 압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해 4월 ‘자신이 건물 내부에 있는데, 현관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기소된 바 있다. 이 일이 알려지면서 가맹점들의 매출이 폭락하고 줄줄이 폐업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안철우 기자 acw@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1년 연장

노사·자치단체 등 연장 요청에
심의회 “시장 회복 아직...공감”

정부가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심의회 서면심의를 통해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는 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키로 심의·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에 종합적인 고용지원을 하는 제도다.

정부는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고용 상황이 악화된 조선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1년간 지원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조선소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 거제·창원, 전남 목포(영암)에 ‘희망센터’를 설치해 고용유지지원금·구직급여·채담금 지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지난해

에는 조선소 밀집지역 주민 9200여 명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번 연장 결정은 연초부터 노사, 자치단체와 현장 등에서 기간연장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심의회에서는 대형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최근 수주가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시장 회복으로 보기 어렵다며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수주가 있더라도 순차적으로 공정이 진행돼 일정기간 생산인력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번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등 기존의 지원대책 역시 1년 더 적용된다. 다만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SOC사업 재취업 지원 등 일부사업의 우대조치는 30일 종료된다.

박은평 기자 pepe@

지지받지 못하는 ‘노동계 夏鬪’

새 정부 ‘親노동’에도 총파업 확산
공세 강화해 노동정책 관철 전략
“사안 추진 중인데 명분 부족” 여론
노동계 내부서도 “정치적 파업” 비판

문재인 정부 출범 50일 만인 오는 30일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노동계가 잇따라 ‘하투(夏鬪)’를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등 친(親)노동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노동계의 총파업 행위를 바라보는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 단체들의 총파업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30일 ‘사회적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새 정부에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 1만 원, 무기계약직 문제 등 개혁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교비정규연대)는 전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30일 총파업을 벌이기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 회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이달 30일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로 했다. 5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 만원 비정규직 철폐 공동행동’도 ‘사회적 총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노동 친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계가 총파업 등의 공세를 강화한 배경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정책을 확실하게 관철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내각 구성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계가 성급하게 파업에 나서려는 것에 대해 사회 각계의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정부가 그동안 노동계가 요구했던 사안을 추진 중인데 총파업은 명분이 없다”며 “지금은 정부가 내세운 공약들을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노동계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의 실장은 “총파업에 대해 ‘쫓발 청구서’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면서 “노동계의 이러한 움직임은 여론과도 멀어지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 대통령 역시 21일 청와대에서 처음 열린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노동계 대표들에게 “지난 두 정부에서 워낙 억눌려 왔기 때문에 아마도 새 정부에 요구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지. 시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적어도 1년 정도는 좀 시간을 주면서 지켜봐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노동계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 노조는 이번 민주노총 총파업에 노조 간부들만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현대차 노조가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파업에 동참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노동계의 총파업 여파가 새 정부의 가장 큰 과제인 일자리 만들기 노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하고 있다.

박은평 기자 pepe@

**한양사이버대학교**
www.hycu.ac.kr

누구나 배우고 싶은 본능이 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한양사이버대학교

한양사이버대학교 2017년 후기 신·편입생 모집

문의전화 02)2290-0082

모집기간 2017년 6월 1일(목) ~7월 7일(금)

공학계열	컴퓨터정보보호공학부(컴퓨터공학과, 해킹보안학과), 전기전자통신공학부(전기전자공학전공, 정보통신공학전공), 기계자동차공학부(기계제어공학전공, 자동차IT융합공학전공), 디지털건축도사공학과
인문사회계열	상담심리학부(상담심리학과, 미술치료학과, 청소년상담학과), 아동학과, 교육공학과,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시설경영전공, 사회복지서비스전공, 사회복지상담전공), 보건행정학과, 법학과, 경영학부(경영정보학과, 글로벌경영학과, 마케팅학과, 서비스생산물류학과, 인사조직전략경영학과, 재무회계세무학과), 경제금융학과, 광고미디어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관광호텔경영학과, 호텔조리외식경영학과),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시니어비즈니스학과
디자인계열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뉴미디어디자인전공,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기획전공)

한양사이버대학교 입학지원센터 : go.hycu.ac.kr

새마을금고, MG손보 증자하나

적자탈출에도 RBC비율 악화...이사회서 재논의
이미 2000억 넘게 지원...추가 유증 필요성에 의문
새 국제회계기준 도입 앞두고 자본 확충 절실해져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 유상증자 문제를 재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 오후 강남구 삼성동 본사에서 이사회를 열고 MG손보의 유상증자 필요성과 함께 다음 달 긴급 이사회 개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날 이사회 심의 대상 중에 MG손보 유상증자 안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MG손보의 재무건전성에 비상이 걸린데다 새로운 국제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앞두고 자본 확충이 절실한 만큼 증자안에 대해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이사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주제를 논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는 자베스제2호를 통해 MG손보에 투자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지난 2012년 자베스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의 경영권을 인수할 당시 새마을금고가 400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주요 주주는 자베스제2호(90.23%)와 새마을금고중앙회(9.77%)다.

이후 MG손보가 적자 늪에 빠지면서 새마을금고의 고민은 깊어졌다. 2013년 394억 원 당기순손실을 시작으로 작년 1분기까지 손실을 뿜쳐내지 못했다. 올해 1분기 흑자전환에 겨우 성공하며 22억6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그러나 보험사의 주요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RBC)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올해 1분기 RBC비율은 118.69%로 작년 4분기(133.59%)보다 15%포인트 가까이 급락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RBC비율을 150% 이상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된다. RBC비율이 50% 미만인 경우는 경영개선요구, 0%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명령이 각각 이행된다.

이에 새마을금고는 MG손보가 적자에서 벗어나고 지급여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2000억 원이 넘는 유상증자를 지원했다. 그러나 계속된 유상증자에도 MG손보의 체력 회복이 더딘 만큼 새마을금고 입장에서 추가 유상증자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새마을금고가 고민하고 있는 유상증자 최소 규모는 477억 원, 최대 규모는 1000억 원을 살짝 웃도는 수준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개선을 일부분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자본확충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건전성지표가 개선되지 않으면 추후 후순위 채권 발행 등도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 회계법인·상장사 ‘갑론을박’

기업에서 회계법인 3곳 제시하면 금융당국이 한 곳 지정해줘
상장사 “부실기업 편취 우려” vs 회계법인 “투명성 위해 필요”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을 두고 회계업계와 상장사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전구용 한국상장사협의회(이하 상장협) 회장은 전날 상장사 최고경영자(CEO) 조간담회에서 “투명한 회계제도 구축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대책이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면서 “일부 과잉 대책(선택지정제 도입)은 기업들을 부실기업으로 편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사인 선택지정제는 기업에서 감사인으로 선임하고 싶은 회계법인 3개를 제시하면 금융당국이 한 곳을 지정하는 방안이다. 대우조선해양 분석회계사태 등 회계문제가 불거진 뒤 회계투명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5월 발의된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회계 투명성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상장협은 지난 8일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선택지정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는 ‘과잉처방’이라고 강조하며 도입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부작용을 제시했다.

우선 선택지정제를 도입할 경우 충분한 역량을 갖춘 후보군 선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잦은 감사인 교체로 일관된 회계원칙 적용 관행에 제약이 생기고,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인의 독립적 지위에 따른 높은 감사보수 요구, 권한 남용, 전·현직 감사인 간 의견 차이로 인한 다툼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더불어 선택지정제를 하더라도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선택지정 대상 회사로 결정하는 것보다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정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정 회장은 “내부고발 활성화, 감리 강화 등 근본적 처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감사인 선택지정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회장은 “감사를 받는 대상이 감사인을 마음대로 선택하는 ‘자유수임제’가 회계감사의 본질을 무너뜨렸다”며 “이것이 회계 투명성 세계 꼴찌의 근본 원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업이 경쟁입찰 방식에 따라 가격이 싼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인은 수지타산을 맞추기 위해 시간과 인력을 아끼는 지금의 행태가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야 감사 품질도 높이고, 회계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지금의 감사환경에서 회계사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국회에 제출된 개혁 법안이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하루 빨리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美 금리 올렸는데... 주담대 금리 오히려 하락

5년 고정혼합형 평균 최고 4.49%
일주일만에 0.1%포인트 떨어져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 앞두고
‘수요 잠기위해 금리 인하’ 지적

국내의 금융시장 환경이 금리상승을 압박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낮아지고 있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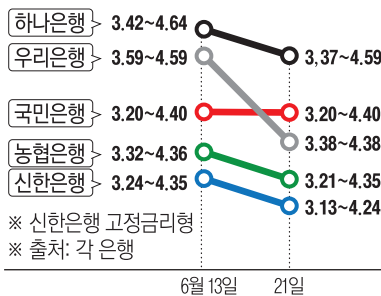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담대 5년 고정혼합형 상품의 평균금리는 3.25~4.49%로 일주일 전보다 0.1%포인트(최저금리 기준) 하락했다.

은행별로는 5년 고정형 상품을 파는 신한은행의 이달 21일 기준 주담대 금리는 3.13~4.24%로 지난 13일보다 10bp(1bp=0.01%포인트) 낮아졌다.

더불어 하나은행은 3.42~4.64%에서 3.37~4.59%, 우리은행 3.59~4.59%에서 3.38~4.38%, 농협은행이 3.32~4.36%에서 3.21~4.35%로 각각 최저금리 기준 5bp, 21bp, 11bp 떨어졌다.

일주일 단위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하는 국민은행의 경우 같은 기간 3.20~4.40%로 변화가 없었다.

은행 5년 고정혼합형 주담대 금리
(단위: %, 최고치 기준)



※ 신한은행 고정금리형
※ 출처: 각 은행

금융권에는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올레 두 번째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국내 대출금리가 상승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지난 3월 미 연준이 저율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때도 국내 대출금리가 출렁인 바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주연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 긴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더딘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리 곡선이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은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오는 8월로 예정된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다음 달 3일부터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은행권에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한 직후 주담대 신청이 증가했다. 신한·국민·하나·우리은행의 주담대 신청 건수는 일주일 새 10.6% 증가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 구입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서둘러 대출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 급증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자 시중은행들이 수요를 잡기 위해 금리를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주담대 금리는 기준금리(금융채 5년물)에 은행들이 임의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에 가산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기준이 되는 금융채 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효진 기자 js62@

산은 ‘KDB넥스트라운드’ 스타트업 희망으로

매주 두 번 IR센터서 유망기업 소개
출범 후 22개 기업 436억 투자 유치
올 300억 IR 계획 1000억 유치 기대

KDB산업은행이 초기 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KDB넥스트라운드’ 프로그램이 스타트업의 현실이 되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산은은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여의도 본점 1층에서 ‘스타트업 IR센터’를 통해 유망 기업을 소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다수의 벤처투자자들이 참석해 투자 여부를 검토한다.

KDB넥스트라운드는 지난해 8월 출범 이후 연말까지 25회의 라운드 개최를 통해 97개 기업이 기업설명회(IR)를 열었다. 그 결과 22개 기업이 436억 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올해에는 총 75회의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지원 프로그램인 넥스트라운드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 산업은행

라운드와 300개 스타트업의 IR을 계획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벤처캐피털로부터 1000억 원의 투자 유치를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은 150억 원의 넥스트라운드 연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KDB넥스트라운드에는 스타트업 발굴을 위해 20개 기관이 파트너로 참여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이후 55회 라운드를 연 KDB넥스트라운드에는 최근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신사업 담당자가 참석하는 빈도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산은의 설명이다.

100명에서 시작한 넥스트라운드 안대 메일은 수신 희망자가 늘어 현재 500명 이상에게 발송되고 있다. 연말에는 7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털 심사역이 100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업계 관계자 대부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동걸 산은 회장은 “KDB넥스트라운드로 벤처기업에는 투자자금을, 초기 투자자에게는 후속투자 및 투자자금 회수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산은이 신성장 산업 부흥을 위한 조직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이투데이 Media는 브랜드다

절대!
Passion

다르다!
Difference

뛰어나다!
Premium

이투데이 미디어는 타 매체보다 앞서서 세상의 흐름을 읽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최선의 뉴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투데이 미디어 임직원은 항상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미래를 꿈꾸며, ‘빅 브랜드’를 만들어 나갈 책임을 약속드립니다.

대표전화 02)799-2600 구독문의 02)799-2684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2010년 10월 4일 일간 창간



고품격 시니어 매거진
브라보마이라이프
2015년 1월 1일 창간



경제전문 연예뉴스
비즈니스
2013년 10월 15일 오픈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손님의 기쁨을 위해 일하는 방식부터 바꾸겠습니다

자유로운 발상만이 손님의 새로운 기쁨을 만드니까! 자율좌석제
높여야 할 건 오직 손님 뿐이니까! 수평적 기업문화

새롭게 생각하고 손님만 생각할 때
손님께 더 큰 가치를 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금융그룹 SMART WORK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금융, 하나금융이 앞서갑니다

‘케미칼’ 48년 만에 지주회사 전환 추진 SK그룹 ‘사촌 分家’ 가시화되나

홀딩스·사업회사로 조직 분할
최창원 부회장 독자경영 강화
“계열분리 가능성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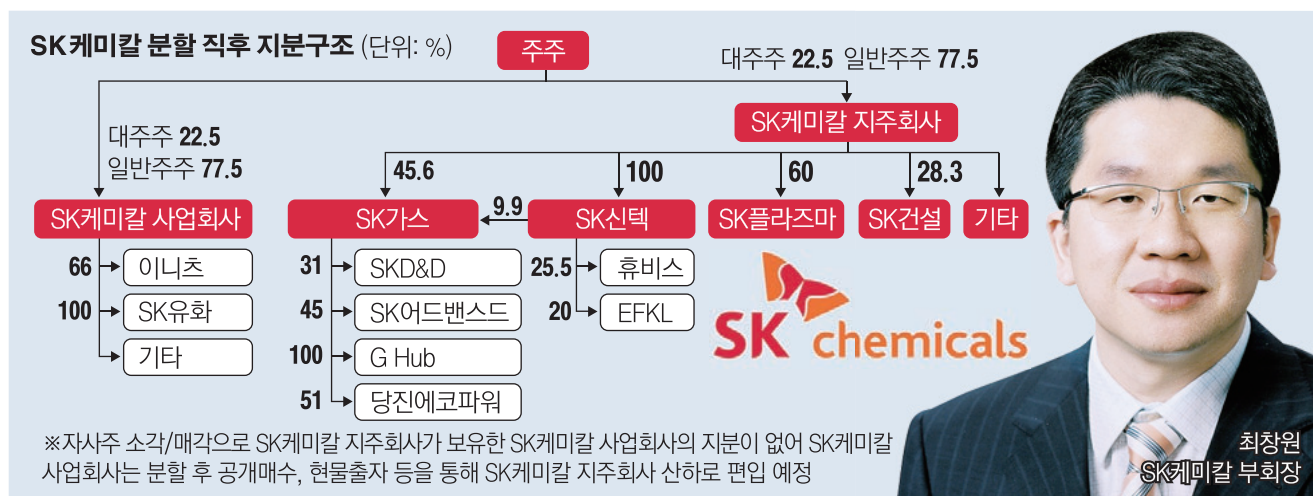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도
지분 정리 등 독립구조 만들기

SK케미칼이 설립 48주년 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SK케미칼 홀딩스(가칭)와 SK케미칼 사업회사(가칭)로 분할돼 각각 자회사 관리와 화학, 제약 사업을 담당하게 된다.

SK케미칼은 이번 지주회사 전환으로 SK그룹 계열 분리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그룹에서 SK케미칼이 계열분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최대원 SK 회장과 사촌인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의 ‘사촌 간 분가’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SK케미칼은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SK케미칼 홀딩스와 SK케미칼 사업회사로 조직을 분할하는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SK케미칼은 48대 52의 비율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된다. 기존 존속법인인 지주회사인 SK케미칼 홀딩스로 전환하고, SK케미칼 사업회사(화학·제약)를 신설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SK케미칼 홀딩스는 SK



케미칼 사업회사와 SK가스, SK플라즈마 등을 자회사로 하는 지주회사 형태가 된다. SK케미칼 홀딩스는 각 사업회사의 경영평가와 투자관리 관리와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등을 담당하고, 각 사업회사는 고유의 사업영역에서 독립적인 책임경영을 영위할 예정이다.

SK케미칼은 이번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그룹 계열분리 가능성에 대해선 기준과 같이 선을 그었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지주회사 전환은 사업 전문성 제고와 경영 효율성 극대화 차원의 결정”이라며 “그룹 계열분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계에선 SK케미칼이 그룹에서 계열분리될 가능성이 사실상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원 SK케미칼 부회장은 2006년부터 SK케미칼을 독

립 경영하고 있다. SK그룹이 2007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할 당시부터도 SK케미칼은 지분 구조에서 제외돼 사실상 분리돼 있다. SK가 보유 중인 SK케미칼의 지분이 전혀 없어 SK케미칼은 ‘최창원 부회장 → SK케미칼 → SK가스로 이어지는 독립적인 지배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SK건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SK케미칼은 향후 “SK건설 지분(28.25%)을 정해진 기한 내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년 내 SK건설의 최대주주인 SK주식회사와 SK케미칼의 지분 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정리가 완료되면 그룹 계열분리도 가능하다.

특히 최 회장 역시 2월 “지분관계가 전혀 없으면서도 SK 브랜드를 사용하는 느슨한 연대 형태의 지배구조도 가

능하다”며 “그런 쪽으로 지배구조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하며 계열분리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최 회장이 SK주식회사, SK텔레콤, SK이노베이션 등을 담당하고, 최 부회장이 SK케미칼을,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SK네트웍스를 맡는 구조로 변할 수 있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역시 SKC 지분을 정리하고 SK네트웍스 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면서 SK네트웍스를 중심으로 한 독립경영 구조를 만들고 있다.

SK케미칼은 지주회사 전환의 첫 단계로 보유 중인 자사주 전량을 소각 또는 매각하기로 했다. 이후 10월 27일 주주총회를 거쳐 12월 1일자로 지주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하게 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국내 완성차 업체, 유럽 시장에 공들이는 까닭은

최근 힘 쏟는 소형 SUV 최대 시장
‘전진 자동차시장’ 상징적 의미 강해
현대·기아차, 전략신차 데뷔 무대로
쌍용차는 벨기에서 첫 레이싱 대회

최근 소형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유럽시장 공략에 집중하고 있다. 유럽이 전통적으로 소형차를 선호하고 있는 데다 최근 SUV에 대한 소비도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자동차 선진 시장인 유럽에서의 성공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21일 기아차에 따르면 기아차 유럽판 매입인은 20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신형 소형SUV ‘스토닉’을 처음 공개했다. 기아차가 내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국내보다 먼저 유럽에서 스토닉을 공개한 것이다.

이는 최근 소형 SUV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유럽이 기아차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업체의 주요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유럽에서 소형 SUV는 110만 대 정도가 팔렸고 전체 판매 차종의 약 7%를 차지했다. 2020년에는 연간 시장 규모가 200만 대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기아차는 유럽전략차종인 프라

이드(유럽명 리오) 플랫폼 기반의 SUV인 스토닉을 선보이며 첫 무대로도 유럽으로 뻗은 것이다.

앞서 소형 SUV 코나를 선보인 현대차도 국내에서 신차발표회를 가장 먼저 열었지만 코나의 외형을 처음 공개한 것은 유럽 시장이었다. 또한 코나의 한국에서 신차 발표회 이후 바로 이어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신차발표회를 열었다.

현대·기아차뿐만 아니라 쌍용차도 유럽에서 처음으로 레이싱대회를 개최하며 유럽에서의 입지 강화에 나서고 있다. 쌍용차는 주력제품인 티볼리로 이미 유럽 소형 SUV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했다.

쌍용차는 티볼리의 인기에 힘입어 지난해 유럽 수출량은 2만3000대를 달성했다. 이는 전체 수출량의 43%를 차지했다. 이 중 소형SUV 수출량은 1만3000여 대, 약 57%로 압도적이었다.

쌍용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에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종식 대표는 “쌍용차가 본고장 유럽에서 우리 브랜드를 내건 모터스포츠 대회를 열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SUV 전문기업으로서의 젊고 역동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폭넓은 고객층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통해 글로벌 판매 확대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현대차 勞使 ‘코나’ 성공 위해 힘 모은다

노조, 사측 제안에 차량 시승, 상태 점검·아이디어 제안… 신차 테스트 첫 참여

일자리연대기금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현대자동차 노사가 야심작 ‘코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소형 SUV 코나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시승하며 테스트에 동참했다. 현대차 노조가 신차 양산에 앞서 품질 확보 활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21일 울산1공장에서 생산하는 코나에 대한 테스트용 차량 시승을 노조에 제안했고, 노조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노조 임원과 집행부 간부들은 13일부터 코나의 품질을 테스트하기 위해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시승에 참여한 노조원들은 △조립 상태 △차량 정숙성 △각종 편의장치 △ 기본 동력 성능 등을 점검해 꼼꼼하게 문서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노조의 신차 테스트 참여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최근 일자리연



현대자동차 소형 SUV ‘코나’

대기금 조성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노사 관계가 냉랭해진 데다, 노조가 이전까지 신차 테스트에 참여한 적도 없기 때문이다. 코나가 회사에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야심작인 만큼, 코나를 기점으로 최근 판매 부진을 탈출해 반전을 꾀하는 내부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코나는 출시 행사에서 정외선 부회장이 직접 프리젠테이션에 나설 만큼 흥행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코나의 양산 일정을 두고도 우여곡절을 겪었다. 당초 현대차는 15일부터 코나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울산1공장 노사 간 부품과 생산대수, 투입인력 등에 대한 합의가 미뤄지 신차양산일이 늦춰졌다. 17일 모듈 부품 범위와 생산 투입 인력을 합의한 현대차 노사는 19일부터 본격 생산에 돌입했다.

현대차는 올해 국내외 시장에서 코나 6만7000대를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내 시장에서는 2만6000대, 미국과 유럽에서는 4만1000대를 팔 계획이다. 내년에는 내수 판매를 4만5000대로 늘리고 수출도 15만 대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출발은 좋다. 14일부터 사전계약을 시작한 코나는 하루 만에 2000여 대가 예약되며 소형 SUV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삼성 ‘갤럭시S3’ 인도 출격
B2B 공략… 태블릿시장 1위 굳히기

삼성전자가 프리미엄 태블릿 ‘갤럭시 탭S3’로 인도 태블릿 시장 1위 굳히기에 나선다. 정제된 소비자 시장(B2C) 대신 정부나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 간 거래(B2B)에 무게추를 옮겨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22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20일(현지 시각) 인도에서 갤럭시탭S3에서 제품 공개 행사를 진행하고 공식 출시를 시작했다. 가격은 4만7990루피(약 84만9900원)이다. 이 제품은 2월 ‘MWC2017’에서 공개 돼 주목받은 제품으로 ‘S펜’을 탑재한 것이 특징이다.

저가형 제품이 주류인 인도 태블릿 시장은 삼성전자와 로컬 업체 데이터드가 1위를 다투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삼성이 시장점유율 21.3%로 승기를 잡았다. B2B 부분의 경우 대기업과 정부가 교육 쪽에 활용하기 위해 주문을 하는 만큼 삼성도 갤럭시탭S3로 상업용 점유율 확보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정유현 기자 yhssoo@

‘정용진 야심작’ 일렉트로마트 2주년 2030·男心 잡았다

가전 신제품 직접 사용해보고
맥주·음료 즐기면서 오락까지
‘체험형 쇼핑’ 고객들에 큰 호응
연내 7개 매장 추가출점 목표



핑 중 맥주나 음료를 즐기 고 오락도 할 수 있는 ‘체험형 매장’ 구현을 통해 소비 자들에게 인기를 끄는 것으

로 평가한다.

이에 따라 현재 11개인 일렉트로마트를 올해 7개 추가하는 등 출점을 가속화하고 있다. 초기 일렉트로마트는 가전매장에 키덜트족을 겨냥한 체험형 매장을 구성해 등장과 함께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후에는 부산 센텀점에 수제맥주와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일렉트로바’를 선보인 것을 비롯해 축전점과 판교점에는 남성 패션과 화장품, 의류, 화장품, 캠핑, 여행, 자전거, 안경점, 바비큐 등을 접목하는 등 종합 라이프스타일 전문점으로 진화하고 있다.

22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일렉트로마트를 이용한 고객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2.7%로 기존 이마트의 남성 비중(27.8%) 대비 5%포인트가량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도 20~30대가 전체의 48%로 절반 가까이 달해 이마트 평균인 35%를 크게 웃돌았다.

남성과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불라네 일렉트로마트는 매출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이마트 죽전점 가전매장은 지난해 8월 가전매장을 일렉트로마트로 리뉴얼한 후 가전 매출이 56.6%나 신장했고 전체 매출도 1.4% 오르는 등 반등에 성공했다. 올 들어 5월까지도 축전점 가전매출은 61.2% 신장했으며, 일렉트로마트로 유입된 고객들의 타 매장 구매가 이뤄지면서 점포 전체도 11.3% 매출이 늘었다.

이마트는 일렉트로마트가 단순히 상품을 진열하는 매장 형태를 넘어 가전제품 체험, 드론, RC카 시연과 쇼

새로운 매장에 대한 일렉트로마트의 고민은 계속돼 축전점에는 스크린 야구와 오락실까지 등장했고, 23일에는 주류전문점인 ‘와인앤모어’가 판교점에 문을 연다. 일렉트로마트는 앞으로도 신규 MD와 체험형 매장 확대 등 새로운 실험을 계속할 계획이다.

한편 일렉트로마트는 오픈 2주년을 맞아 22일부터 7월 2일까지 11일 동안 전국 첫 동시행사인 ‘서머 페스티벌(SUMMER FESTIVAL)’을 진행한다. 조남호 기자 spdran@

LG전자, 도미니카공화국서 ‘LG 이노페스트’ 개최



LG전자는 21일부터 24일까지 도미니카공화국 푼타카나에서 ‘LG 이노페스트’ 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LG 이노페스트’는 LG전자 고유의 지역 맞춤형 신제품 발표회로, 주요 거래선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LG 시그니처 올레드 TV W’를 비롯해 ‘슈퍼 울트라HD TV’, ‘LG G6’ 등 주요 제품을 포함한 100여 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사진제공 LG전자

LS산전 ‘스마트에너지’ 만년적자 탈출?

새 정부 에너지정책 수혜 기대… 태양광·ESS설비 사업 확대 박차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 LS산전의 ‘스마트에너지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힘입어 올해 적자폭을 상당 부분 좁힐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증권업계가 추정한 2분기 LS산전의 스마트에너지사업 예상 영업손실액은 104억 원으로 전년(-150억 원) 동기과 비교해 30.6% 적자폭이 줄었다. 또한 올 3분기에는 영업손실 97억 원, 4분기에는 영업손실 65억 원으로 적자폭이 빠르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LS산전은 2015년 사업개편을 통해 ‘융합사업부’(현 스마트에너지사업부)를 만들어 태양광, ESS(에너지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사업에 주력하고 있지만, 시장 개화 지연, 연구개발(R&D) 비용 증가 등으로 △2015년 176억 원 △2016년 668억 원 △2017년 1분기 144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실적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정책에 힘입어 스마트에너지사업이 수혜를 볼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성되고 있다. LS산전은 신재생에너지정책 확대에 힘입어 올해 태양광과 ESS설비에 환경엔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사는 3월 국내 공장 최초로 청주사업장에 구축한 태양광 2MW 발전설비에 1MW급 ESS용 전력변환장치(PCS)와 1MW 배터리를 연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다.

그 결과 LS산전은 22일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정수장에 1MW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발전소의 에너지저장장치 규모는 3MWh이고 태양광 규모는 1MW다. 지난해 시작된 일본 홋카이도 치토세 28MW급 태양광 발전소도 올가을 완공을 앞두고 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수도권 軍부대 떠나니.. 집값도 ‘깡충’

의정부 아파트값 1년새 2.15% 뛰어
송파 거여 인근 위례신도시 개발 속도
용산·수원지역 분양 물량 관심 높아

경기도 의정부를 비롯해 송파 거여동 등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었던 군부대 시설이 속속 이전하면서 대규모 부지가 시민의 품으로 환원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급파라기 땅에 자리 잡았던 수도권 군부대 시설이 속속 이전하고, 그 부지를 둘러싼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이 가시화하면서 주변 부동산시장도 움직이고 있다.

군사시설은 작전 수행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리적 여건이 좋은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한 때 성남 서울공향이 강남 대체 신도시 유류 후보지로 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군사시설 주변 지역은 개발에 제한을 받아 이렇다 할 투자 가치가 없다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정설이다.

군 시설이 가까이 위치한 서울 금천구도 집값이 오르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한 곳이었다. 하지만 서울시가 2013년 7월 ‘군부대부지 지구단위계획변경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을 가결하고, 도하부대 부지를 대규모 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하면서 집값이 뛰었다.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군부대부지 개발계획 발표 직후인 2013년 7월부터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 값은 평균 1.1% 올랐으나,

군부대 이전 수혜 분양 단지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	총가구수 (일반분양)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녹양역 스카이59	65~137	2581 (조합원 모집)
경기도 수원시 호매실A7	행복주택	16~36	400
경기도 수원시 세류동	래미안	미정	2178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	92~237	1140
서울 송파구 거여동	거여2-2구역	59~151	1199(378)

금천구는 2.1% 상승했다. 금천구는 당시 서울에서 동작구와 성동구에 이어 세 번째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의정부와 송파 거여동 등도 미군기지 이전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집값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의정부시에 주둔해 온 8개 미군기지는 이미 이전된 6개 기지 외에 2개 기지가 올해 8월과 내년 7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이전하게 된다. 또 송파구 거여동에 있던 육군 특수전사령부가 경기 이전으로 부대 이전을 마무리하면서 위례신도시 북측 개발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사업 시행자인 한국도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용지 매각에 속도를 내고 있다.

때문에 최근 1년간(2016년 4월~2017년 4월) 경기도 아파트 매매 값이 1.25% 오른 가운데 의정부시는 2.15% 올랐다. 같은 기간 개별 단지 실거래가도

3000만~6000만 원 올랐다.

여기에 서울 용산 미군기지도 올해부터 평택이전이 시작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민간 주도의 논의가 본격화된다. 수원에서는 국방부의 수원공군기지 이전사업이 최종 확정됐다.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이뤄지는 분양 물량에 대한 관심이 높다.

우선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시행)은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역세권 도시개발구역에 짓는 ‘녹양역 스카이59’의 조합원을 모집 중이다. 또한 효성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국제빌딩주변 제4구역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용산 센트럴파크 효성해링턴 스퀘어’를 6월 중 분양하고,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서는 거여2-2구역을 재개발한 1199가구가 하반기에 분양할 예정이다.

구성형 기자 carlove@

부동산 대책 발표전후 보증 중단·재개 ‘혼란’ 야기
HUG, 사실상 분양 인허가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유관기관과 협의없이 독단 결정
“민간업체에 발급권한 배분해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분양보증을 갑자기 중단하고 3일 만에 재개하면서 업계에 큰 혼란이 일자, HUG의 분양보증 독점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2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HUG는 정부의 ‘6·19 부동산대책’ 발표 전인 16일 분양보증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3일 후인 19일 다시 발급을 재개했다. 분양보증 발급을 재개하면서 ‘6·19 부동산대책’의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포함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 및 부산진구 등 3개 지역은 발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이유로 분양 계약 자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납부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 제도다. 분양보증의 발급을 중단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규 분양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문제는 이 같은 분양보증의 권한을 HUG가 독점하며, HUG가 사실상 또 하나의 분양 인·허가 기관으로 기능할 만큼 지나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보증 발급

이 중단돼 분양 일정이 늦어지면 분양사업자는 사무실을 운영하는 인건비와 대출금 이자 등으로 인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

건설업계에선 분양보증에 업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데도, HUG가 유관기관과 협의 없이 독단으로 발급의 중단과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분양보증의 중단 결정 과정에 대해 HUG의 한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논의한 뒤 보고를 올리면 HUG 내부에서 중단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분양 시장 작동 자체를 정치시킬 수 있는 중요한 결정을 HUG가 독단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가들은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발급권한을 보다 많은 기관에 배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양 시장에 큰 충격을 주는 보증 발급 중단 결정은 업계에 미칠 영향과 국가적인 비용 편익 등을 분석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과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중·단기적으로 주택금융공사 등의 기관이 분양보증 권한을 나눠 갖고, 장기적으로는 민간 업체도 분양 보증을 발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용 기자 cogito@

‘강남 재건축’ 入城 꿈꾸는 중견건설사 “빅 브랜드 문턱 넘기 어렵네”

호반건설 ‘방배14구역’서 또 고배
자금력 갖춰도 브랜드 파워 밀려
“상징성 큰 지역..계속 진입 노력”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전에서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대형사의 자금력과 사전 영업력, 브랜드 파워에 밀렸지만, 상징성이 있는 만큼 강남 재건축시장 진입을 위한 시도는 계속될 전망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14구역 재건축조합은 시공사선정 총회를 열고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했다. 국내 10대 대형건설사 중 한 곳인 롯데건설과 중견건설사 호반건설이 양강 구도로 맞붙었지만, 결국 대형건설사의 몫으로 돌아갔다.

호반건설이 강남 재건축 수주시장에 도전장을 내민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주택사업만으로 시공 능력평가순위가 13위까지 오른 호반건설은 지난해부터 강남권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 신반포7차, 방배경남아파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시공권은 결국 대립산업(신반포7차)과 GS건설(방배경남)에 돌아갔지만 호반건설은 자사 브랜드를 독특히 홍보하는 효과를 봤다. 특히 신반포7차의 경우 입찰 보증금만 600억 원에 달해 자금력이 없다면 나서기가 쉽지 않은 사업장이었다. 대형건설사와 비견할 만한 자금력을 갖추고 링 위에 올라 맞붙었다는 것 자체가 이슈였다.

중견건설사들의 강남 입성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애초에 물밑 경쟁을 치르는 사전 영업력에서 밀리는 데다 특

화설계와 낮은 공사비로 조합을 설득해도 결국 브랜드파워 앞에서 맥없이 무너지기 일쑤다.

서초구 반포 일대 한 공인중개소 측은 “강남은 조합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 자금력이 있어 낮은 공사비 같은 가격 경쟁력은 중요하지 않다”며 “대형사 브랜드를 달고 아파트 가치를 높일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감안할 수 있다’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말했다.

중견건설사 관계자 역시 “강남권에서 과거 아파트를 지었던 회사들이 주택 전문인 중견사들인데, 이들이 충분한 자금력과 설계, 해택을 내세운다고 해도 결국 표심은 대형사로 쏠린다”며 “서울에 랜드마크 단지를 갖고 있지 않은 데다 브랜드 파워에서도 밀려 앞으로도 진입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반건설은 방배13구역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곳엔 우마·반도·산동아 등의 중견건설사들도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하지만 신축 가구수 2300가구, 예정공사비가 5700억 원을 웃도는 대규모 사업이어서 결국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롯데건설, SK건설 등 대형사들만 입찰에 참여해 시공권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호반건설이 최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신반포14차 재건축 사업은 예정 공사비 700억 원에 신축 가구수가 300가구가 되지 않은 작은 사업장이어서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강남권은 상징성이 큰 지역이어서 사업 과정에서 다소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들어가야 하는 곳”이라며 “대부분의 중견사들이 200가구 안팎을 주의 깊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효 기자 sorahosi@

대림 ‘e편한세상 추동공원 2차’ 분양
지하철 7호선 연장 검토 등 개발 호재

대림산업이 의정부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 단지를 분양한다.

대림산업은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 추동공원 1블록에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조합도)’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섰다 22일 밝혔다.

‘e편한세상 추동공원2차’는 지하 4층~지상 29층, 14개 동으로 전용면적 59~140㎡, 총 1773가구 규모로 구성됐다. 전용면적 140㎡ 4가구를 제외한 99%의 가구는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중 소형 가구다. 지난해 10월에 분양한 ‘e편한세상 추동공원 1차’와 합치면 총 3334가구의 ‘e편한세상’ 대단지가 형성된다.

의정부 핵심생활권인 금오지구의 생활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단지의 큰 장점이다. 금오지구 상권에는 홈플러스, 젊음의 거리, 로데오거리, 신세계백화점, CGV, 의정부 제일시장 등이 위치해 쇼핑·문화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각종 개발 호재의 기대감도 감돈다. 지하철 7호선 연장이 검토되고 있으며, 구라·포천 간 민자고속도로는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최근 공동주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도 세심하게 신경 썼다. 거실과 주방에는 일반 아파트보다 2배가량 두꺼운 60mm 바닥차음재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대폭 줄였다. 단지 입주는 2020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

김정용 기자 cogito@

2017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2017 KBS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는 2012년부터 시작되어 6회째를 맞이하며, 국내 사이클 저변확대와 우수신인선수를 발굴하는 명실상부한 대회로서 전국 우수 중·고등부, 일반부 500여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6일간의 트랙경기과 2일간의 도로경기와 더불어, 국내 최고권위의 동호인 사이클대회인 마스터즈사이클을 양양투어도 개최됩니다. 천혜의 자연환경과 8,000년의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사이클의 고장 양양에서 국내 최고 선수들의 멋진 사이클경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2017년 6월 24일(토) ~ 7월 1일(토) ●장 소 | 강원도 양양군, 양양사이클경기장

●주 최 | KBS 양양군 KCF 대한자전거연맹 KBCF 한국실업사이클연맹

●후 원 | KSPOT 국민체육진흥공단

사우디 왕위계승 서열 1위 빈살만 OPEC 위상 회복시킬까

살만 국왕 형제상속 전통 깨고
친아들을 '왕위 계승' 1위로
빈살만, 경제 정책 주도 '실세'
유가 급락에 脫석유화 추진도

사우디아라비아 왕정의 후계구도가 전격적으로 재편됐다. 살만(82) 국왕이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조카 모하메드 빈 나예프(57)를 실각시키고 자신의 친아들 모하메드 빈 살만(31) 왕자를 1위로 올렸다. 이러한 사우디 왕가의 서열 변화가 또다시 추락하는 국제유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살만 국왕의 파격적인 결정은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사우디 왕가 전통을 뒤집는 것이었다. 이날 결정으로 빈 나예프는 현재 사우디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주도하는 왕실 직속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며 사우디 정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식 서열 넘버에 오르면서 빈 살만 왕자가 앞으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자는 그간 왕위 계승 서열 2위였지만 '실세' 왕자로 통했다. 살만 국왕은 2015년 즉위하면서 당시 서른 살이던 아들 빈 살만을 세계 최연소 국방장관에 앉히며 일찌감치 힘을 실었다. 빈 살만은 현재 사우디의 주요 경제·사회 정책을 주도하는 왕실 직속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직을 겸하며 사우디 정책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식 서열 넘버에 오르면서 빈 살만 왕자가 앞으로 유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빈 살만 왕자는 지난해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석유의존도를 줄이겠다고 탈(脫)석유화 정책 '비전2030'을 내놓으며 에너지 정책에도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이전까지 사우디 왕실은 왕정을 지탱하는 근간인 원유 사업만큼은 왕가 출신이 아닌 전문가를 수장으로 영입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빈 살만 왕자는 석유 정책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겠다고 20년 넘게 석유장관을 지낸 알리 알 나이미를 해임, 자신의 오른팔로 불리는 칼리드 알팔리를 에너지 장관에 임명했다. 국영석유회사 아람코의 기업공개(IPO) 계획도 빈 살만 왕자가 진두지휘



모하메드 빈 살만(오른쪽) 왕세자가 21일(현지시간) 제1왕위계승자로 임명된 후 메카에서 열린 총성서약식에서 사우디 왕가 일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메카/로이터연합뉴스

하고 있다.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의 석유 정책은 중동의 석유 카르텔인 석유수출국 기구(OPEC)의 정책과 맞닿아있다. 뉴욕타임스(NYT)가 빈 살만 왕자의 주도로 OPEC이 주요 산유국의 감산을 이어 나가고 있다고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빈 살만 왕자가 사우디 왕정 실권을 쥐게 되면서 OPEC 내에서 더 '자유로운 손'을 얻게 됐다고 말한다. 일단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살만 국왕의 결정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가 짙다. 빈 살만 왕자 특유의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이 석유정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전문가는 빈 살만 왕자가 석유 정책과 관련해 경험이 없으면서 정책에 사사건건 간섭하거나 갑작스럽게 정책을 발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빈 살만 왕자는 지난해 4월 사실상 확실했던 주요 산유국 생산량 동결 합의를 뒤집고 느닷없이 탈석유화 정책을 내놓았다.

리서치회사 채텀하우스의 폴 스티븐스 중동 에너지 부문 애널리스트는 "문제는 빈 살만 왕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성향이라는 것이며 그가 누구의 조언을 듣는지 확실치 않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탈석유화 정책도 오락가락하며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 초기 사우디는 국제유가 방향이 중요하지 않다고 유가 하락세를 사실상 방치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계속

하락하자 러시아를 비롯한 비(非)OPEC 산유국을 불러모아 감산을 합의했다. 사우디 주도로 산유국이 감산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국제유가는 하락일로다. 전날 국제유가는 올해 고점 대비 20% 하락하면서 약세장에 진입했다. 감산 이행 약속의 예외 적용을 받는 일부 국가와 미국의 생산량 확대로 공급과잉 우려가 유가 발목을 잡고 있다. 21일에도 국제유가(WTI 기준)는 2.25% 하락해 배럴당 42.53달러를 기록했다. 앞으로 배럴당 40달러 선 저지도 힘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유가 하락세는 OPEC의 영향력이 나날이 축소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빈 살만 왕자 주도로 감산에 나섰지만 결국 원유 시장에서 생산량과 함께 영향력도 줄어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 전략에 있어서 베테랑이었던 알리 알 나이미 전 사우디 석유장관은 진작부터 이를 꿰뚫어 봤다. 그는 2014년 OPEC의 감산이 필요하다는 시장의 요구에 "OPEC이 생산량을 줄인다고 해도 미국 셰일유 생산업체 때문에 공급과잉 문제 해결에 도움 안된다"고 잘라말했다. 생산량 감축과 함께 원유시장에서의 영향력마저 줄어들다는 게 그의 계산이었다. NYT는 유가가 오르지 않는 한 사우디의 감산 정책도 의미가 없어지고 빈 살만 왕자가 주도하는 아람코의 IPO도 예상만큼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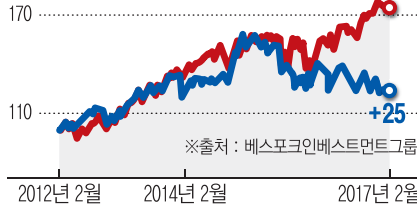
‘아마존 포식’에 신음하는 글로벌 유통업체

공격적 경영… 소매업체 폭격
‘아마존 공포 지수 폭동’ 급락
‘웃 입어보고 사기’ 서비스도

글로벌 유통업계에 아마존 공포가 커지고 있다. 아마존이 지난주 미국 메이저 식품유통업체 홀푸드마켓을 137억 달러에 인수하겠다고 발표하자마자 이른바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에 해당되는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총 320억 달러(약 36조5440억 원) 증발하는 등 소매업계가 요동치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영어로 'DEATH BY AMAZON'으로 불리는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는 아마존의 매출 확대와 신규 사업 진출, 인수·합병(M&A) 등 약진으로 실적이 악화하는 54개 종목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 오프라인 유통업체 월마트와 백화점 체인 JC페니, 도서 소매업체 반즈앤노블, 사무용품 분야의 스테이플스 등 미국 대표 소매기업들이 포함됐다. 미국 투자정보업체 베스포크

아마존 공포 종목 지수· S&P1500지수의 2012년 이후 누적 투자수익률 추이 (단위: %)



인베스트먼트그룹이 2012년 2월 이 지수를 만들었다.

아마존이 홀푸드 인수를 발표한 다음 날인 16일 뉴욕증시에서는 아마존 공포 종목들에 매도세가 몰렸다. 캘리포니아 소재 식품유통업체 스마트&파인얼스토어가 19% 폭락했고 미국 최대 슈퍼마켓 체인 크로거는 9% 급락했다. 월마트 주가도 5% 가까이 빠졌다. 이들 아마존 공포 종목 중 절반 이상이 올 들어 두 자릿수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강조했다.

아마존은 최근 실적 호조와 제프 베조스 최고경영자(CEO)의 공격적인 경영전략을 바탕으로 말 그대로 소매업계를 폭격하고 있다. 아마존은 설립 당시

온라인 서적 판매로 시작했지만 영역을 넓히더니 최근에는 신선식품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분야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주 식품 유통업계에 이어 이번 주에는 의류업체가 아마존의 새로운 희생양이 됐다. 아마존이 전날 '프라임 워드روب(Prime Wardrobe)'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발표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옷을 입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무료로 반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백화점 등 주요 의류매장은 고객이 직접 옷을 입어본 후 구매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그나마 강점으로 남았으나 아마존이 이것마저 가져가려 하는 것이다.

JC페니 주가가 이날 5.7% 급락하고 디크스포팅굿즈는 3.8% 빠지는 등 의류 관련 종목이 속대밭이 됐다. JC페니와 시어스홀딩스가 올해 각각 100개 이상의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의 불황이 이어지고 있다. 아마존의 새로운 공세에 이들 업체의 쇠퇴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신문은 내다봤다. 배준호 기자 baeh94@

퀸스 스피치… 모자에 담긴 의미는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이 21일(현지시간) 런던 국회의사당에서 찰스 왕세자와 나란히 앉아 의회 개원을 알리는 '여왕 연설(Queen's Speech)'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여왕은 테리사 메이 정부의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입법계획을 공개했다. 이날 연설과 함께 SNS에서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파란색 모자가 화제가 됐다. 네티즌은 모자 앞부분에 달린 가운데가 노란 5개의 파랑색 꽃 모양이 EU 유럽기를 상징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과 함께 여왕이 브렉시트 논의에서 어느 성향인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런던/AFP연합뉴스



키워드로 보는 이슈

바비 남친 '켄 카슨'이 달라졌어요

외모 지상주의 그만… 피부색 7가지에 레게·곱슬머리도

바비 이어 현실성 갖춘 인형 출시

서구형 미인의 기준으로 불렸던 바비 인형에 이어 바비의 남자친구 '켄 카슨(Ken Carson)'도 새로운 모습들로 재탄생했다.

바비인형 제조사 마텔은 20일(현지시간) 체형과 피부색, 헤어스타일이 각각 다른 총 15종의 켄을 공개했다. 마켓워치와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체형은 크게 마른 체형, 보통 체형, 풍채가 좋은 체형 등 총 3가지로, 피부톤은 7가지로 나누고, 머리 색깔과 헤어스타일은 각각 8가지, 9가지로 다변화했다.

이 같은 변화로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레게머리의 켄이나 곱슬머리의 켄이 등장했다. 켄의 패션 스타일도 다양해졌다. 기존의 말쑥한 정장 차림이나 만디한 스타일의 켄만 있었다면 반바지 차림의 켄, 꽃무늬 반소매 티셔츠를 입은 켄, 운동복 차림의 켄 등 다양한 성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변화를 줬다. 바비 브랜드를 총괄하는 리사 맥나이트 마텔 부사장은 "현 세대에 맞게 바비와 켄의 모습도 재정의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마텔은 바비인형 탄생 58년 만에 낱선한 8등신 미녀의 대명사이자 서구형 미인의 기준으로 불렸던 바비인



마텔이 20일(현지시간) 공개한 15종의 바비 남자친구 '켄'의 모습.

사진제공 마텔

형에 '다양성'을 허락했다. 50여 년 전통을 깨고 바비인형 '몸매의 다양화'를 선언하며 바비인형에 현실성을 입혔다. 1959년 출시된 바비인형은 지난 50년 간 '비현실적인' 마른 몸매, 길쭉한 팔다리, 금발 미인의 상징이었다. 바비 출시 이후 2년 뒤인 1961년 공개된 켄은 바비의 오랜 남자친구다. 바비와 켄은 많은 사람이 원하는 이상적인 몸매로 서구형 미인의 기준으로 통했다. 그러나 출시 직후부터 어린이들에게 외모 지상주의를 부추기고 여성 외모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심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 같은 비판은 매출 부진으로 이어졌다.

이에 마텔은 턴어라운드 전략으로 '현실화'를 택했다. 그 결과 '현실성을 갖춘' 바비인형 출시로 지난해 바비인형

매출은 전년 대비 7% 성장해 9억7200만 달러(약 1조1100억 원)를 기록했다. 이는 마텔 전체 매출의 18%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러나 바비는 올해 다시 매출 부진에 빠졌다.

특히 구글 입원 출신인 마고 조지디 아스를 최고경영자(CEO)로 영입하면서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매출 감소를 겪어야 했다. 올해 1분기 바비 매출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1억2340만 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켄의 현실화 전략이 매출 성장세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난감 리뷰 웹사이트 TTPM닷컴의 짐 실버 최고경영자(CEO)는 "다양해진 켄은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칼라닉 CEO 사퇴… 우버, 리더십 공백 비상

세계 최대 차량 공유업체이자 700억 달러(약 80조 원)에 육박하는 기업 가치로 세계 1위 '유니콘 기업'(가치 10억 달러 이상인 비상장기업)임을 자랑하는 우버가 2009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았다.

우버는 지금의 위치로 키온 트래비스 칼라닉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그만두면서 리더십 공백 비상이 걸린 가운데 그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지 업계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칼라닉은 올 들어 직원 성추행과 남성 중심의 성차별적인 기업문화, 고객 사생활 침해, 경쟁기업 기밀 유출에 따른 소송 등 온갖 파문에 휘말린 끝에 지난주 장기 휴직을 선언하더니 결국 주요 투자자들의 압력을 못 이겨 전날 CEO 자리를 내놨다. 우버는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핵심 임원직도 텅빈 상태다.

칼라닉의 후임으로 가장 먼저 거론된 것은 페이스북의 2인자로 마크 저커버그 CEO와 함께 회사를 현 위치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셰릴 샌드버그 COO였다. 잘못된 기업문화로 진통을 겪는 우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적임자라는 판단에서다. 그러

올해 우버 악몽 어디까지 ※출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날짜	주요 내용
1월 19일	자사 운전자 수입 과장 혐의로 2000만 달러 벌금
2월 3일	칼라닉, 우버 앱 삭제 운동에 트럼프 경제 자문단에서 사임
2월 24일	알파벳 자회사 웨이모, 자사 자율주행차 기술과 영입기밀 빼돌린 혐의로 우버 고소
3월 1일	칼라닉, 자사 운전자에게 폭언 후 리더십 도울 필요 인정
3월 20일	제프 존스 사장, 잘못된 기업문화 갈등에 사임

사내 성추행·男 중심 문화 못매

투자자 압력 못이겨 경영 손배

스태그스 디즈니 전 COO

워치츠키 유튜브 CEO 후임 물망

나 샌드버그는 페이스북에 남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뉴욕포스트는 디즈니의 COO를 역임했던 톰 스태그스도 유력한 후보라며 그는 칼라닉 사임 전에 우버와 이미 인터뷰를 했다고 밝혔다. 최근 야후에서 물러난 마리아 메이와 유튜브의 수전 워치츠키 CEO,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의 후계자였다가 물러난 니케시 아로라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러나 FT는 우버의 일부 핵심 투자자들이 외부에서 CEO를 영입하는 것

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전했다. 우버 고문이자 주주인 브래들리 터스크는 "만일 선임 CEO가 단지 일시적인 기업 운영자에 그치고 운송산업에 대한 비전이 없다면 우버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버는 아마존과 애플이 각자의 영역에서 그랬던 것처럼 운송 부문을 장악해 앞으로 10년 안에 5000억 달러 가치를 지닌 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CEO로는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CEO의 책임은 막중하다. 칼라닉이 방치한 나쁜 기업문화와 온갖 법적·윤리적 이슈들을 해결해야 하는 큰 책임을 떠안게 된다. 야후파이낸스는 우버가 수익성 확보, 기업문화 개선, 운전자·고객과의 관계 개선, 혁신 지속 등 과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케이블 본연의 역할...지역 소식 전해야죠”

송재혁 티브로드 보도제작팀장의 ‘생존전략’

“케이블TV의 생존 기반은 지역사회라는 걸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지역사회와 영혼을 나눈다는 마음가짐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송재혁(사진) 티브로드 보도제작 팀장은 케이블 TV의 존재 이유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면서 본연의 역할인 지역사회와의 화학적 융합에 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송 팀장은 준비해온 원고 대신 케이블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고민을 진정성 있게 이야기했다.

21일 명동에 있는 티브로드 서울 본사에서 만난 송 팀장은 “과거 케이블1.0, 2.0 시대를 반성하고 있다”며 “지역사회를 위해 다가가지 못하고 지상파 메이저 방송사들을 쫓아가다 보니 진짜 중요한 지역사회와의 접점 기능을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고 자책했다.

그는 “2015년을 기점으로 케이블 3.0 시대로 규정하고 지역민에 다가섬과 어우러짐의 자세로 지역주민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내년 6·13 지방선거를 지역축제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고민 중”이라고 귀띔했다.

송 팀장은 언론사에서 기자로 활동하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때 지역채널방송으로 이직했다. 태광그룹 첫 케이블TV(SO)인 티브로드 ABC 방송 전신, 한국케이블TV 안양방송에 입사

세월호 때 하루 18시간 특보 지역민 지지...방향성 깨달아

‘원곡동 반상회’ ‘행복충전...’ 올해 외국인·다문화 가정 관련 시청자 참여 프로 제작 확대 내년 6·13 지방선거도 기획

해 취재기자로 활동했다. 당시 보도국의 눈에 띄어 앵커로 발탁돼 경기권 메인 앵커로 활약하기도 했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티브로드가 지역사회에 더욱 집중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송 팀장은 “희생자 대부분이 우리 지역권(한빛방송)에 있는 안산 단원고 학생들과 교사들이었다”며 “하루 18시간 뉴스 특보를 하는 강행군을 하면서 우리 동네 학생들의 이야기를 지역민의 시각에서 방송했고, 지역민들에게 지지를 얻었고 그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깨달음을 얻었다”고 회상했다.

티브로드는 올해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관련 프로그램 제작 확대에 나선다. 현재는 지역민이 직접 참여해 방송 콘텐츠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면서 케이블의 지역 접점 역할을 확대하



송재혁 티브로드 보도제작팀장은 “내년 6.13 지방선거를 케이블이 지역 사회에 함께 녹아드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겠다는 의도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영향으로 다문화 가정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경기권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시청자 중심의 프로그램은 입소문을 타면서 호평을 받고 있다.

송 팀장은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 다문화 가정을 소외계층으로 한정짓지 않고 우리 동네라는 틀에서 글로벌 역군으로 정의하고 우리 지역 문화의 일부로 소개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다문화특구인 안산시 원곡동을 중심으로 이주여성이 직접 VJ로 활동하며 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활정보와 다문화 정책 등의 소식을 전달하는 ‘원곡동 반상회’를 송출하고 있다. 올해

2월 첫 방송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8편을 제작했다.

수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인 ‘행복충전 무지개 노래교실’을 운영 중이다. 송 팀장은 “각 나라의 구전 민요 같은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들 소개하고 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방한 외국인들이 관광 프로그램으로 수원 화성과 함께 스튜디오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티브로드는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장비 지원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올해는 총 2억2000만 원 상당의 카메라 등 방송제작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범근 기자 nova@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 테킬라 회사 팔아 1조 챙겨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56·사진)가 겹경사를 맞았다. 얼마 전 아들 딸 쌍둥이 아빠가 된 데 이어 지인과 공동 창업한 테킬라 회사 ‘카사미고스’를 10억 달러(약 1조1425억 원)에 팔아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했다고 BBC가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클루니는 친구인 랜드 거버, 마이크 벨드먼과 2013년 테킬라 회사 ‘카사미고스’를 공동 창업했다. 카사미고스는 ‘친구들의 집’이란 뜻으로 처음에는 사적인 모임을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그랬던 카사미고스가 작년에 미국에서만 테킬라 12만 상자를 팔았고, 올해는 17만 상자까지 판매할 목표를 세울 정도로 큰 기업이 됐다.

이에 잠재 가치가 높다고 보고 조니 위커, 크라운로열, 기네스 등의 브랜드를 가진 세계적인 주류회사 디아지오가 1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 카사미고스의 가치 평가에는 향후 10년간 수입 구조 등을 고려한 잠재가치 3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는 7억 달러를 우선 지불하고 10년간 3억 달러를 추가로 지불할 계획이다. 디아지오는 회사를 세계적인 규모로 키울 방침이다.

카사미고스가 디아지오에 팔리긴 했지만 클루니와 동료들이 경영에서 완전히 하 손을 떼는 것은 아니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최민수 부인 강주은, 홈쇼핑 쇼호스트로 데뷔

CJ오쇼핑 토요일 오전 고정출연 리빙·인테리어 상품 진행 맡아 “행복한 가정 모습 고객에 전달”

배우 최민수 씨의 부인이자 방송인 강주은(사진) 씨가 CJ오쇼핑을 통해 리빙 전문 프로그램에 고정 출연한다.

CJ오쇼핑은 오는 24일 오전 8시 20분 강주은 씨가 출연하는 ‘강주은의 굿라이프’를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 굿라이프는 CJ오쇼핑의 리빙 상품 전문 모히현, 강연진 쇼호스트가 진행을 맡았으며, ‘삶을 즐기는 쇼핑의 안목’이라는 콘셉트로 최신 라이프 스타일을 공유하고 관련 상품을 제안하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 20분부터 2시간



사진제공 CJ오쇼핑

동안 방송되고 리빙, 인테리어 등의 상품을 주로 선보인다.

CJ오쇼핑은 자사의 대표 리빙 전문 프로그램을 이끌 진행자를 오랫동안 찾다 평소 홈쇼핑 방송에서 만나기 어려웠던 강주은 씨의 새로움에 매료돼 최종 섭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캐나다에서 태어나 외국에서 자랐지만 유명 배우인

최민수 씨와 결혼 후 아들 둘을 낳고 기르며 한국에서 주부로만 23년을 보낸 것도 장점으로 꼽혔다. 또 평소 요리를 즐기고 자녀 교육에도 관심이 많은 강주은 씨의 가족에 대한 사랑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고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로 잘 전달될 것으로 보고 있다.

CJ오쇼핑 관계자는 “한국의 마사 스텀어트를 꿈꾸는 강주은 씨의 신선한 살림 비법과 상품 고르는 안목이 진정성 있는 설명으로 고객들에게 잘 전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실제 강주는 씨가 집에서 직접 제품을 사용해보는 장면을 사전 제작해 방송에서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사 스텀어트는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억만장자 최고경영자(CEO)에 오른 미국인이다.

조남호 기자 sprdan@



사진제공 NH투자증권

구 대표가 ‘명예이장’으로, 임직원들은 ‘명예주인’으로 결연을 맺은 곳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인사

◆현대중공업 그룹 (부사장) △현대중공업 하수 △현대삼호중공업 이상근 (전무) △현대중공업 김형권 박정식 남상훈 강영 서유성 심화영 송도현 △현대미포조선 황승현 △현대삼호중공업 유영호 △현대건설기계 정준철 (상무) △현대중공업 오홍중 정병학 김중렬 황원철 윤의성 황추보 원광식 소음섭 류창열 손정호 심우승 이홍섭 김병수 김동일 △현대미포조선 전승호 민덕기 박주삼 이종찬 △현대

삼호중공업 성현철 김석기 △현대로보틱스 김동혁 서성철 △현대일렉트릭 김종길 이진철 권병훈 △현대건설기계 김관영 조승환 권용범 △호태현대 이성호 △현대오일뱅크 하광희 안응기 김재호 김요영 이승수 △현대캐피탈 정임주 △현대코스모 이병재 (상무부) △현대중공업 황도연 박용렬 정철원 류근찬 △현대로보틱스 심재양 최정욱 △현대일렉트릭 이종걸 △현대건설기계 전복문 장옥현 강명식

◆동양대 △평생교육원장 이재철 △신문사방송국 주간 전상남

◆SBS △남북교류협력단장 박종필 ◆CBS △논설위원실장 박종률 △선교TV본부장 정재원 △선교TV본부 선교국장 유승우 △대구방송본부장 김일근 △청주방송본부장 김기수 △세주방송본부장 최종우 △마케팅본부장 양경주

부음

▲박동철씨 별세. 안주(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석대변인)씨 부친상 = 21일, 천안 하늘공원장례식장, 발인 25일, 041-

553-8000 ▲전병욱(동부석유 대표)씨 모친상 = 21일, 전남 순천한국병원, 발인 23일, 061-723-4444 ▲김기경(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씨 부인상 = 21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02-2258-5940 ▲정현남씨 별세. 장복두(전남 협진사회 대표)씨 부인상, 최선·성우(이피인스 수석)·영균(삼성전자 책임연구원)씨 모친상, 김정임씨 시모상 = 2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23일, 02-3410-6914

한국여성 인물사전

〈138〉신사임당(申師任堂)

율곡 어머니이기 이전 산수화 잘 그린 예술가

신사임당(申師任堂·1504~1551)이 살다 간 16세기는 ‘조선’적인 문화가 막 꽃핀 시대였다. 정치적으로 공론을 중시한 사림(士林)의 시대이며 문화적으로는 한글이 지식인들에게도 널리 퍼져 이황은 ‘도산십이곡’을, 이이는 ‘고산구곡가’를, 정철은 ‘관동별곡’ 등을 한글로 지었다. 이 속에서 사임당은 강릉, 봉평, 서울에 살면서 그림으로 당대 이름을 떨쳤다.

사임당은 외가인 강릉 북평촌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신명화, 어머니는 윤인 이씨다. 행동거지가 차분하고 성품이 강직해 스스로 규범을 정해놓고 실천했다. 어릴 때에 글을 익혀 사서삼경을 읽었으며, 일곱 살에 안견(安堅) 그림을 모방해 산수화를 그릴 만큼 일찍 그림에 소질을 보였다.

19세에 이원수(李元秀)와 혼인했다. 이원수는 욕심이 없고 호방한 성품이나 생활력이 강하지 못했다. 이이(李珣)는 아버지 이원수에 대해 “살림살이를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회고했다.

신명화는 사임당에 대한 사랑이 극진해 혼인 뒤에도 곁에 두고 싶어 했다. 이원수는 홀어머니를 모셨으나 장인 뜻을 따르기로 했다. 하지만 혼인한 해에 신명화가 세상을 뜨자 사임당은 친정에서 아버지 상을 마쳤다. 그 뒤 21세에 서울로 가서 시어머니에게 처음 인사를 올리고, 38세에 시어머니가 살림을 물려주자 서울로 와서 정착했다. 혼인한 지 20여 년 만이었다. 이 시대가 여성이 혼인해도 여전히 친정에서 살 수 있기에 가능했다.

사임당은 당대 그림으로 명성을 얻었다. 사임당이 한양에 살 때 관료를 지낸 이문건은 “산수화를 잘 그린 신씨”로 평가했다. 서얼로서 학문으로 일가를 이룬 어숙권도 “신씨는 어려서부터 그림을 잘 그렸다. 포도와 산수가 매우 뛰어나 한때 평가하는 사람들이 안전에 비금간다고 했다”고 기록했다. 오늘날 사임당 작품으로 그림 80여 점과 글씨 7점이 전한다. 모두 전정작(傳稱作)이지만 당대인들로부터 예술가로 인정받은 사실이 예술가로서의 삶을 입증해준다.

사임당은 48세에 세상을 뒀다. 당시 장남 이선은 28세이나 혼인도 못하고 그 어떤 과거시험에도 합격하지 못한 상태였다. 사임당에게는 일곱 자녀가 있었지만 아이처럼 똑똑한 자식만 있지 않고 평범하고 성공하지 못한 자식도 있었다.

이런 사임당이 율곡 이이의 어머니니로 추앙받은 계기는 율곡 학통을 계승한 송시열(宋時烈) 덕분이다. 송시열은 사임당이 그린 난초 그림의 발문에 “이 그림은 사람 손으로 그렸다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워 사람 힘을 빌려서 된 것이 아니다... 과연 율곡 선생을 낳으실 만하다”고 적었다.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쳐 1970년대에 ‘한국의 어머니’로 재탄생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사임당은 조선사회 최초로 당대 재능으로 명성을 떨친 여성이다. 따라서 사임당에게 덧씌운 이미지를 견어내고 진면목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해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책임연구원

‘이투데이 역사·여성·미래 여성사박물관 건립추진협의회

“두부도 김치도 100% 국산 써요”

북창동순두부 ‘인증현판식’...직영점 넘어 가맹점까지 확대

국산김치차율표시위원회와 외식브랜드 ‘북창동순두부’는 북창동순두부 강남구청점에서 국산김치 소비 확대를 위한 인증 협약을 체결하고 국산김치 인증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한식 세계화와 한식문화 발전에 힘써오고 있는 북창동순두부는 100% 국산 재료를 사용한 김치 생산업체에서 제조한 김치를 공급받고 있으며 이번에 우선 6개 직영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인증을 받았다.

김수용 북창동순두부 대표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브랜드 가맹점에 대해서도 국산김치 인증사업을 도입해 직영점과 가맹점의 동반성장 상생 구도를 넓혀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순자 국산김치차율표시위원회 위



사진제공 국산김치차율표시위원회

원장도 “국산김치 사용으로 당장 작은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착한 음식점이 결과적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김치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을 지켜나갈 사업으로 정착시켜겠다”고 다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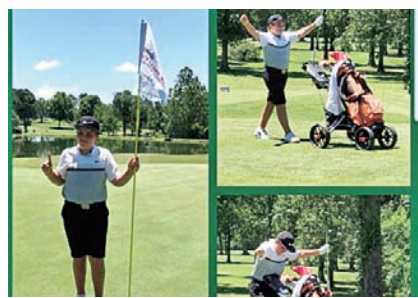
골프 실력 ‘부전자전’...존 델리 아들 홀인원

美주니어 대회...190야드 파 3홀

‘필드 위의 악동’으로 불리는 프로골퍼 존 델리(51·미국·사진)의 아들이 주니어 골프대회에서 홀인원을 기록하며 ‘골프인 2세’다운 솜씨를 뽐냈다.

미국 골프 전문매체 골프닷컴은 22일 “올해 13살인 델리의 아들이 지난 주말 열린 주니어 대회에서 190야드 거리의 파 3홀에서 5번 아이언으로 홀인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존 델리 2세가 출전한 이 대회는 미국 아칸소주 존슨의 파에트빌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미국 주니어골프협회(AJGA) KPMG 스테이지 루이스 주니어 올스타 인비테이션벌이었다.



존 델리 트위터 캡처

델리 2세는 파3 7번 홀에서 홀인원을 했고 아버지 델리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사실을 알리며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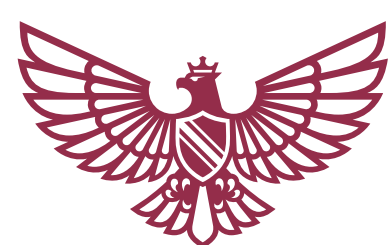
델리는 필드 안팎에서 기행을 일삼아 ‘퐁운’이라는 별명으로 더 잘 알려진 선수다. 안성찬 골프 대가자golffahn58@


**한국서비스대상
아파트 부문 15년 연속 수상!**
 KSA 인국표준협회

서북권 새로운 주거중심 **수색·증산뉴타운**에 DMC 생활을 맨 앞에서 누리는 롯데캐슬을 기대하십시오

6월 23일 GRAND OPEN

월드컵대교(공사중)

[illegible]

LOTTE CASTLE

※ 공급지역 :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361-10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15세대 중 1,192세대 중 일반반영 454세대 및 부대보사시설, 지하3층, 지상7~25층 ※ 하차 등에 따른 소비자 회피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등 관련법정에 따라 적용되며, 국토부 입주자 사전 점검 운영요령에 의거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본 재건축은 편지 및 인쇄상의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권보주택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업자는 소비자의 권보호를 위하여 평 당시 제로미터(㎡)를 씁니다. ※ 시공 : 수색4재건축추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 : 롯데건설주

박형주의
과학 에세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아주대 석좌교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대학생 상담을 하다 보면 진로에 대한 고민을 자주 접한다. 취업 전쟁이라는 말에 미리 겁먹고 어쩔 줄 모르거나, 대학원에 가려다가 남고 가는 친구들을 보니 자신이 없거나. 이래저래 미래를 두고 고민이 깊다.

경제 성장기였던 1980년대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은 적었지만, 개발시대의 공과가 드러나면서 나뉘는 고민이 깊었다. 공부를 계속하려 해도 선택의 폭이 작았다. 개인적으로 대학 졸업만 무렵에 큰 결정을 몇 가지 했다. 전공을 물리학에서 수학으로 바꾸기로 했고 미국 유학을 가기로 했다. 공부하고 싶던 기하학 분야의 국내 여건이 열악하기도 했다. 계획이란 게 다 그런 것처럼 혼자 생각일 뿐이었고 실현 여부는 불투명했다. 유학 자금을 마련할 형편이 아니니 장학금까지 받아야 했는데, 수학 전공자도 아닌 먼 나라 학생을 받아줄 대학이 있을지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이 잦았다.

박사 과정 중에 입대 휴학하려던 애초 계획을 바꾸어 군복무를 먼저 할까, 국내 대학원에도 지원해볼까 고민했지만 결국 다 안 했다. 스스로 못 믿는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는 경험칙도 작용했고, 그 자리가 꼭 필요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았다.

졸업하고 대학원 수업을 청강하던 차에 장학금이 포함된 입학허가서를 받았다. 십년감수(十年減壽)가 이런 거구나. 그 몇 해 뒤에 유학 자율화가 실행되고는 유학생이 크게 늘었지만, 아직 어려운 나라 살림에 외환 보유액도 적었던 시절이었다. 여권을 신청하려면 서울 동송동 근처에서 해외여행자 교육을 종일 이수해야 했다. 해외에서 간첩에게 포섭되지 않는 방법 등의 내용이라 해서 덜떠들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의 얘기를 들을 기회가 없던 우물

안 개구리 청년에겐 나름 흥미로웠다. 희망으로 들뜨고 낙관으로 해석해 버리는 20대 아니던가.

친구의 동창생이 같은 학교로 유학 간다고 해서 함께 출국했다. 생전 처음 타 본 비행기에서, 긴 여정 동안 뒷자리 흡연석에 자주 오갔다. ‘기내 흡연이라니?’ 하겠지만, 그때는 그랬다. 나중에 내가 비흡연자 대열에 걸 거란 것도 상상하지 못했다. 초년의 동행자와는 같은 기속사에서 지내다가 생활비를 아끼기 겸 나와서 룸메이트가 됐다. 고국을 그리는 유학생들이 모이면 기타를 들고 와서 모든 노래의 반주를 하는 재주를 가진 친구였다. 너그럽고 유쾌한 성품의 친구와 그렇게 20대를 동고동락(同苦同樂)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복학하니 애 아빠가 되어 있었다.

귀국해서 공과대 교수로 있던 이 친구의 부고를 얼마 전에 받았다. 백세 시대라더니, 암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 상실감에 빠지면, 바빠 사는 일상에서 하던 일들의 의미를 따지게 된다. 지금 나는 정말 하고 싶은 일,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전문성으로 무장한 프리랜서들이 실리콘밸리를 바꾸는 중이라는데, 이들이 커리어를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하다. 잘하거나 좋아하거나. 인공지능이 일자리 판도를 바꿀 거라는 걱정이 많은 때에 어쩌면 가장 현실적인 대처법일 수도 있겠다. 문화가 다르니 우리에게만 딱지치 않을 변화일까? 직업 안정성이 중요 가치로 됐고 ‘공무원 고시’라는 말이 나도는 시절이지만,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잘하는 일, 생각만 해도 심장이 뛰는 일을 찾아 고집어 내면 미래 가능성의 폭이 넓어진 다.

물론 스스로 못 믿는 일은 잘 안 일어나더라는 경험칙은 여전히 유효하다.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가 논란이다. 5월 열린 70회 칸 국제영화제에 이어 29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또 한 번 논란이 증폭됐다. 제작사, 감독, 극장 등 이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관객 사이에서도 다양한 논란이 제기됐다. ‘옥자’ 논란은 영화 유통 플랫폼의 혁명적 변화라는 담론부터 영화산업 생태계의 교란 행위라는 비판까지 많은 담론과 비판들을 내포하고 있다. 논란은 예상되지 않았다. 한국 영화와 극장산업의 생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자’는 어떤 영화인가. 가입자가 190여 개국의 93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가 600억 원을 투자해 제작한 영화다. 넷플릭스는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동영상 콘텐츠를 단순히 유통하는 것에서 벗어나

영화 ‘옥자’ 논란의 본질을 보자!

직접 제작에 나서고 있다. ‘House of Cards’를 비롯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를 제작해 TV나 극장이 아닌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했다. 넷플릭스는 급증하는 가입자를 기반으로 기존 방송·영화산업을 위협하며 새로운 미디어 지형도를 그리고 있다.

프랑스 극장협회(FNCF)는 70회 칸 국제영화제 개최 직전 ‘옥자’가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은 넷플릭스 작품으로 극장 상영을 원칙으로 하는 칸 영화제 경쟁부문에 초청된 것 자체가 규정 위반이라며 집단으로 반발했다. “극장에서 볼 수 없는 영화가 수상해선 안 된다”라는 페드로 알모도바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의 발언은 논란을 더 증폭시켰다.

‘옥자’ 논란은 29일 국내 개봉을 앞두고 또 다른 차원으로 확대됐다. 온라인과 극장에서 동시 개봉하려는 제작사와, 극장에서 일정 기간 상영(홀드 백)한 뒤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멀티플렉스 업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급기야 전국 상영관 2500개 중 90% 이상을 운영하는 CGV, 롯데

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3개 업체가 ‘옥자’를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옥자’의 온라인과 극장 동시 개봉은 한국 극장·영화산업의 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의 한국 영화시장 독과점을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가했다.

제작사와 감독, 일부 전문가들은 ‘옥자’의 온라인과 극장 동시 개봉은 미디어 기술의 진보와 발전에 따른 필연적인 영화 유통 플랫폼의 변화이고, 이 변화에 극장과 영화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쇠락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멀티플렉스 업체의 상영 거부는 관객의 권리를 무시한 거대 기업의 횡포라는 주장도 펼쳤다.

영화 관객과 온라인 가입자를 볼모로 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한 ‘옥자’의 온라인과 극장 동시 개봉에 대한 논란의 본질은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이 초래한 변화다. 미디어 학자 마셜 맥루한이 ‘미디어의 이해’에서 강조했듯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과 이용

은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행동 방식을 결정하고 문화적·사회적 변동을 이끈다.

‘옥자’ 논란이 의미 있는 담론으로 발전하고 국내 미디어와 영화·극장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뉴미디어가 초래하는 변화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새로운 미디어와 기술이 확장해주는 것과 쓸모없게 만드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뉴미디어의 사용이 고도화하고 한계에 달할 때 어떤 반전의 잠재적 가능성을 갖게 될까에 대해 근본적 성찰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머지않아 “인터넷이 극장을 죽였네”라고 말할지 모른다. 영국 팝그룹 비글스가 1979년 “Video killed the radio star...”라고 노래한 것처럼, 우리는 지금 2009년 등장한 스마트폰이 지하철에서 유·무가지를 내민 것을 비롯해 신문, 방송, 영화 등 미디어 산업과 경제, 사회에 초래하고 있는 혁명적 변화와 그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무너지는 수많은 기업을 보고 있지 않은가.



부채(6)-냉정선(冷靜線)

합죽선에는 멋진 서화작품을 있어야 제맛이 산다. 매(梅), 난(蘭), 국(菊), 죽(竹) 사군자를 그려 넣기도 하고 시원함이 묻어나는 멋진 시문(詩文)을 서예작품으로 써 넣기도 한다.

나는 더러 ‘냉정선(冷靜線)’이라고 쓴 부채를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하곤 한다. 냉정을 되찾는 부채라는 뜻이다. 2007년이던가? 미국 스미스소니언의 초청을 받아 특강과 서예 퍼포먼스를 하러 워싱턴에 갔을 때, 이 ‘냉靜廳’을 몇몇 미국인들에게 선물했더니 무척 좋아했다. 나는 이 ‘냉靜廳’을 선물하면서 다음 내용의 글을 함께 준다. 외국인에게는 물론 영문 번역본을 준다.

“냉정이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정이 없어서 얼음처럼 차

고 찰싹팠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마음이 고요하게 가라앉아서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다’는 뜻입니다. 전자는 한자로 쓰면 ‘冷情(칼 냉, 뜻 정)’이고, 후자는 ‘冷靜(칼 냉, 고요할 정)’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마음이 조금해지는 경우를 적잖게 당합니다. 그런 때 냉정(冷靜)을 유지하지 못하고 화가 치미는 대로 행동하면 일을 망치게 됩니다. 우리는 화가 나거나 급박한 때일수록 냉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토닥토닥



서울시립대·명지대 總學, 축제 즐기고 수익금 기부 “박수 보냅니다!”

서울시립대와 명지대 총학생회가 대학 축제 수익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해 훈훈함을 자아냈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16일부터 나흘간 열린 축제에서 각종 놀이 코너와 부스를 통해 얻은 수익금 300만 원을 기부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립대 총학생회는 교내 발전기금에 ‘100주년 시민문화교육관 이름 남기기 캠페인’ 기금으로 100만 원, 동대문구청에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지원사업 기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전달하기로 했다. 명지대 총학생회도 지난달 16일부터 사흘간 열린 축제에서 ‘공병 모으기 캠페인’으로 모은 돈 152만3840원을 교내 환경미화, 주차관리, 경비업무 용역직원 등을 위해 기부한다고 했다.

네티즌은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대학 축제가 단순히 노는 행사로 그치지 않아 의미 있네요”, “다른 대학에서도 이런 기부를 고민해 봤으면”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y0403@

카드로 보는 세상



본격적인 캠핑의 계절, 텐트와 코펠, 버너 같은 장비 없이 몸만 가면 되는 캠핑장이 있습니다. 바로 국립공원에서 운영하는 ‘풀옌 캠핑장’입니다. 그야말로 먹을거리만 챙겨 가면 자연을 즐기며 캠핑할 수 있는 시설들입니다. 풀옌 캠핑장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곳은 월악산 땃둔재 캠핑장과 소백산 남천 캠핑장입니다. 두 곳 모두 인기 만점이라 내달 15일까지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대표 풀옌 캠핑장 두 곳의 이용 방법과 특징 등을 알려드립니다.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M48N7Z>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쿱**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함인희 칼럼



이화여대 교수

‘분노 조절 장애 범죄’有感

최근 분노 조절 장애로 인한 ‘묻지마 범죄’ 소식이 잇따라 들려와 가슴이 행하게 뭉리는 기분이다. 아파트 외벽 작업자가 커 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며 밧줄을 끊는 바람에 5명의 자녀를 둔 가장이 목숨을 잃었는가 하면, 이번엔 인터넷 수리 요청을 받고 방문한 수리기사를 향해 통제되지 않은 분노를 폭발시켜 애꿎은 목숨을 빼앗은 사건이 발생했다니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충간 소음 논쟁에 보복 운전 분쟁이 가열되더니 ‘묻지마 살인’까지 지면을 장식하고 있는 요즘, 예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범죄가 뜨거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 보니, 법률적인 차원의 강력한 제재 못지않게 사회·문화적인 차원의 자정(自淨) 노력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든다.

분노 조절 장애 범죄의 원인을 논하면 서 극도의 불안 심리나 스트레스, 충동

조절 장애 등 개인적인 요인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문제 해결의 희망은 줄어들 것이 분명하다. 이들 유형의 범죄 배경에 아노미(anomie) 현상이 자리하고 있음을 기억할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보다 용이할 것 같다.

아노미는 흔히 ‘무(無)규범 상태’로 번역되지만, 규범이 없는 상태에선 사회 시스템 자체의 작동이 불가능한 만큼 정확한 번역이라 보기 어렵다. 아노미란 과거의 규범이 더 이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규범이 출현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혼란·혼돈·불안 등을 지칭한다고 봄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오늘날 아노미적인 상황을 야기한 주범의 하나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도시적인 생활양식이라 할 수 있다. 급격한 도시화의 물결이 시작되기 전 한국 사회는 전형적인 이웃 공동체가 살아 있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조상이 누구인지부터 뉘 집 자식인지까지 소상히 알고 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문을 활짝 열고 얼굴을 맞대며 사는 사람들 사이에서 충간

소음이 웬 말이며 묻지마 살인이 어디가 당하거나 한 이야기인가?

유독 모르는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심한 한국 사회에서 이름도 모르고 뉘 집 자식인지도 모르는 익명의 개인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갈등 없이 평화롭게 공존하며 공생할 수 있을까 하는 새로운 규범을 미처 만들어내지 못한 데 우리 모두의 불찰이 있다. 한번도 마주친 적 없는 사람들끼리 이웃이 되면서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신(新)규범이 반드시 필요했음에도 말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국인들은 전형적인 ‘노마드(nomad·유목민)족’이라 할 국민들보다 더욱 자주 주거를 옮긴다고 한다. 앞집 옆집 뒷집에 누가 사는지 미처 알기도 전에 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는데, 이는 대도시일수록 심하고 단독주택보다 아파트일수록 빈번하다고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안면몰수(顔面沒收)하는 무례함에 분노의 극단적인 폭발까지 가능한 것 아니겠는가.

관건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일 텐데 무조건 법을 강화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한 마을 공동체의 부활을 대안으로 제안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우리네 삶에서 빠르게 사라져간 골목을 곳곳에 만들어보는 어떨는지. 물론 물리적인 공간으로서의 골목이 아니라, 심리적·상징적인 공간으로서의 골목을 되살리자는 이야기이다. ‘나 몰라라’ 하는 익명성 대신 여러 세대가 어울리며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누구인지 기억해 주는 곳으로서의 골목 말이다.

만일 익명성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시민적 무관심’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모르는 개인들 사이에선 일정 정도 무관심함을 보이는 것이 예절이라는 의미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물론 예의 바른 무관심과 무례한 무관심은 분명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 주며 더불어 살기 위한 성숙한 예의범절을 생활화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절실한 때인 것 같다.

노경아의 라운 우리말터

편집부 교열팀 차장



주책과 엉터리가 변한 까닭

대부분의 기자가 그렇듯 나 역시 출근하면 가장 먼저 신문을 읽는다. 보수지, 진보지, 경제지 세 종류를 훑어보는데, 안 읽는 척하면서 꼼꼼히 보는 것이 ‘오늘의 운세’이다. “귀인을 만날 수(數)”라는 내용이 나오면 하루 종일 가슴이 설레기도 한다. 신문마다 ‘오늘의 운세’가 인기를 끄는 것을 보면 미래를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人之常情)이지 싶다.

며칠 전 운세는 “근목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하면 검어지는 것처럼 나쁜 사람을 가까이하면 몰도니 멀리하세요”였다. ‘내가 파란 사람인지, 빨간 사람인지, 심지어 검은 사람인지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맑고 깨끗한 사람 하고만 교류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에 헛웃음이 났다. 그러면서 슬슬 직업병(?)이 발동해 ‘근목자흑화(近墨者黑)’한 말을 떠올렸다.

‘언어의 근목자흑!’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부정어 ‘없다’와 자주 어울린 결과 부정의 의미로 바뀐 사례는 의외로 많다. 대표적인 게 ‘주책’이다.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 “주책바가지야!”라는 대사는 쉽게 들을 수 있다. 주책에 속되거나 놀림조에 쓰이는 접사 ‘바가지’가 더해진 형태로, 실수를 반복하고, 실수 없이 남들이 하지는 대로 행동하는 등 실없이 구는 사람을 놀리는 말이다.

‘주책’은 한자어 ‘주착(主着)’에서 유래했다. 일정하게 자리 잡힌 주장이나 판단력을 뜻하는 아주 좋은 말이다. 국립국어원은 “모음의 발음 변화를 인정하여, 발음이 바뀌어 굳어진 형태를 표준어로 정한다”는 규정에 따라 ‘주착’을 버리고 ‘주책’만 쓰게 했다. ‘조생달’이 ‘조송달’로 바뀐 것처럼 발음하기 편한 말을 취한 것이다. 그런데 주책은 주로 ‘없다’와 어울리

면서 일정한 주장이나 판단력이 없이 아무렇게나 함부로 하는 것이라는 부정의 뜻이 되었다. 하나의 단어에 상반된 두 의미가 자리 잡은 것이다.

파라서 좇대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는 뜻의 표준어는 ‘주책없다’ ‘주책이다’ ‘주책맞다’ ‘주책스럽다’ 모두 해당한다. 같은 뜻의 ‘주책떨다’ ‘주책 부리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띄어 써야 한다. 이 중 ‘주책이다’는 올해 1월에야 표준어 규범 안으로 들어왔다. 언중의 입에 자주 오르내린 덕이다. 다만 체언 ‘주책’에 ‘이다’가 붙은 말이라 사전의 표제어에서는 제외됐다.

‘엉터리’ 역시 부정어 ‘없다’와 어울린 결과 뜻이 바뀐 재미있는 말이다. 원래 ‘사물이나 일의 대강의 윤곽, 사물의 근거, 터무니’ 등 좋은 의미의 순우리말로, 진실된 모습을 표현할 때 쓰였다. 반대로 말이나 행동이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을 때, 실속이 없거나 실재와 어긋날 때는 ‘엉터리없다’라고 한다. ‘엉터리없는 짓’ ‘엉터리없는 생각’ ‘엉터리없는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는 ‘엉터리다’ ‘엉터리짓’ ‘엉터리 생각’ ‘엉터리 이야기’처럼 ‘없다’가 생략된 채 쓰이고 있다. ‘없다’의 의미가 ‘엉터리’ 속에 들어가 ‘엉터리만으로도 엉터리없다’의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결국 ‘엉터리’와 ‘엉터리없다’는 같은 뜻의 단어로 표준국어대사전에 함께 올랐다. 게다가 엉터리는 터무니없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까지 뜻이 넓어졌다.

마음씨가 곱고 따뜻하며 행동이 올바른 이를 가까이하면 즐겁다. 그런데 그런 이와 어울리려면 먼저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엉터리없는 사람을 알아보는 노력도 필요하다. jsiysh@

객석

정도영 사람과직업 연구소 대표



시간과 함께 나아지고 있는가

직장인의 시간은 대개 회사에서 요구하는 업무들로 채워진다. 거기에 어느 정도의 개인 생활들이 부가된다. 일은 삶의 한 요소이지만, 막상 직장인들은 일이 삶이 되다시피 한 경우가 많다. 우리가 흔히 선망하는 직장들도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높은 급여’는 곧 ‘개인의 생활이 없는 삶’을 뜻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개인이 자신의 삶을 영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사실상 ‘일하는 기계’가 되기 쉽다. 기계는 자신의 행복에 대해 의문을 품지 않는다. 마치 많은 급여가 자신의 행복에 의문을 품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말이다.

일이 과해지면 일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지기 쉽다. 회사 생활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일을 처리기도 바쁜’ 처지가 되면 사람은 살기 위해 변한다. 노골적인 표현이지만, 잘해야 ‘육만 안 먹으면 되는’ 태도로 일을 대하게 된다. 이런 식이면 시간이 지나도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 늘 허덕이며 일만 쳐낸다.

그쯤 되면 개인적인 향상이나 성취 같은 것은 먼 나라 이야기이다. 어쩌다 황금 같은 시간이 나면 남보다 많이 번 돈을 쓰기도 바쁘고, 때로는 멍하니 TV에 빠져 일상과는 거리가 먼 판타지에 젖기도 모자란다. 물론 이것들이 휴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은 일시적인 마취제의 역할이 더 커 보인다. 이쯤이면 행복하지 않느냐는…

이런 삶의 자제는 사실상 자신이 가진 유한한 자원을 잡아먹으며 사는 것과 같다. 새롭게 들어오는 것도 없고, 깊이 고민해서 개선하는 것도 없다. 일에도 품질이란 것이 있다면 점점 더 세상에 뒤처지는 품질이 되고 만다.

새로 나올 때는 신차이지만 끊임없이 정비하고 돌보지 않으면 그 차는 금방 중고차가 되기 마련이다. 그런 차는 오래 타고 싶지도, 오래 탈 수도 없다. 직장인에게 자신만의 시간은 끊임없는 자기 혁신과 변화를 만들어내는 동력(動力)이다. 너무 바쁘기만 한 것은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니다.

기자수첩

김유진 산업1부/eugene@



에너지정책, 사회적 합의가 우선

문제인 정부가 들어서며 ‘탈(脫)원전, 친환경 에너지’ 정책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값싼 발전 단계와 효율성 등 경제성만을 중시하는 원자력과 석탄 발전 등을 위주로 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과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는 쪽으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에너지 정책의 향후 방향성을 보여줬다.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기를 ‘일시 가동 중단(셧다운)’시킨 것은 물론 19일 새벽 0시를 기해 국내 첫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1호기의 가동을 중단했다.

이같이 가격 위주의 경제성만을 생각한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 친화적인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한 것은 국제적인 에너지 정책 방향성에도 부합해 많은 이들의 환영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행 전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정책이 변하다 보니 일선에서 혼란이 있다. 공정을 10% 미만 석탄화력발전소의 재

검토에 들어가면서 신설 예정이던 발전소 건설이 모두 멈춰 관련 업계에서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현재 7%에 불과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까지로 높이겠다는 목표지도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률이 떨어지고 발전단계, 세금 등 높은 비용 문제도 있다.

에너지 정책은 장기전(長期戰)이다. 그만큼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특히 발전을 담당하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우리 사회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한 만큼 충분한 업계의 청취가 이뤄질길 바란다. 올 연말에 수립될 8차 전력수급계획에는 환경과 국민안전을 고려한 향후 15년간의 전력 계획에 충분한 사회적인 합의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합의’가 담긴 전력수급계획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투데이 社是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철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6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광고문의		(02)799-2601 / 2602	구독신청·배달안내		(02)799-2684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21세기에도 세계 왕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세계의 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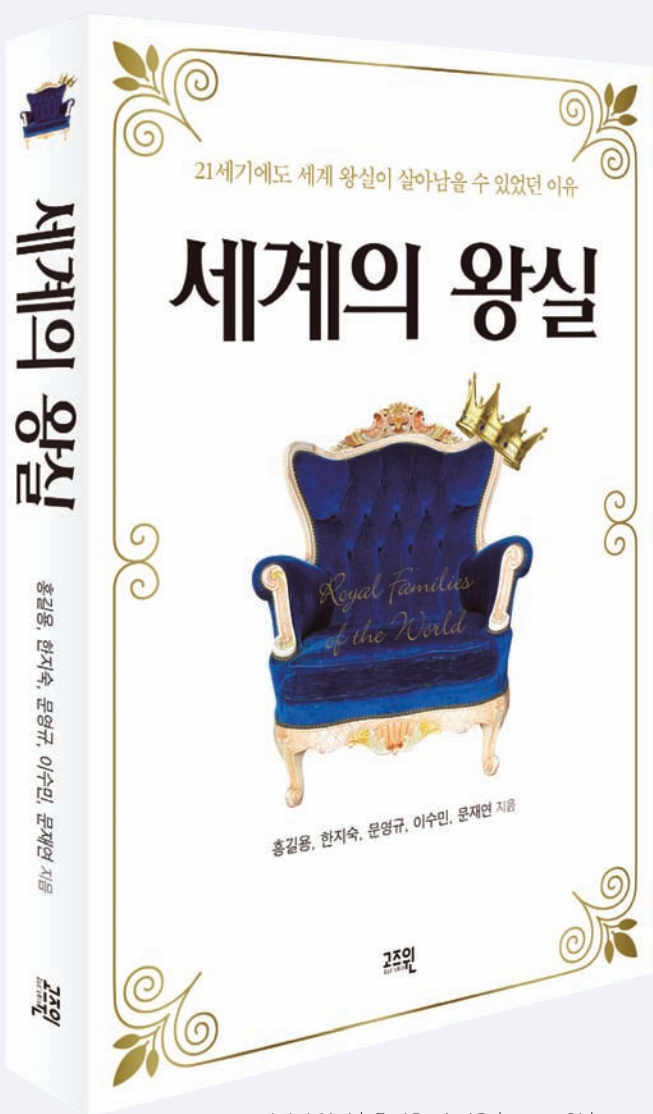


왜 왕을 둘까?

“인류 역사에서 왕은 오랜 기간 절대 권력의 상징이었다. 하지만 이제 절대 군주는 중동과 아프리카 몇 곳을 제외하고는 없다. 그런데 민주정을 채택하는 나라에서도 왕을 국가 원수로 두는 곳들이 아직 상당하다. 왜 왕을 둘까?” 아랍의 봄을 지나 우산 혁명을 거쳐 우리의 촛불 집회까지 세계 곳곳에서 민주화의 열기가 끊임없이 분출되고 있다. 그런데 만민이 평등한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갈망이 절실한 지금도 아직 왕을 두는 나라들이 있다.

여전히 필요한 왕의 권위란 과연 무엇일까? 아니, 우리는 왜 그런 권위에 목마른가? 어쩌면 세계의 왕실을 소개하는 이책을 통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권위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주의와 왕과 왕족이 누리는 특권은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현상은 아직 민주주의가 만개하지 못한 제3세계 국가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전형인 유럽의 국가들까지 여전하다.

전국서점에서 절찬판매 중



세계의 왕실 | 홍길용 외 지음 | 18,000원 | 288쪽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 1호 ... 大選 때마다 文대통령 외교 멘토

〈17대 국회〉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5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그 어느 때보다 책임이 막중하다. 새 정부가 풀어야 할 대의 문제가 임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북한핵 문제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가 대표적이다. 당면 현안들은 단순히 국방 문제를 넘어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전 분야에 걸친 '고차방정식'이 된 지 오래다. 외교부, 국방부 등 한 부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안보실의 책임론은 여기서 출발한다.

국가안보실 수장을 맡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정통 외교관료 출신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첫 실장 인선 배경으로 대북 문제를 포함한 현안들을 '외교로 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2013년 국가안보실이 만들어진 이후 군(軍) 출신인 김장수(육사 27기)·김관진(육사28기) 전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맡아온 것과 비교된다. 이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는 대외 현안을 강경 기조 일반도에서 벗어나 국제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핵심 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 = 정 실장의 대표적 네트워크로는 전직 외교관을 주축으로 한 '국민 아그레망'을 꼽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 'agrement'에서 나온 외교용어로 특정한 인물을 외교 사절로 임명하기 전에 파견 상대국에서 동의하는 과정을 뜻한다.

국민 야그레망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이전인 2월 16일 외교 자문역 수행을 위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보 문제를 정치적인 목적에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안보적폐"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라도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검고성' 발언을 했다.

당시 한국을 둘러싼 국내·외 정세는 '위기' 그 자체였다. 북한의 김정남 피살 사건과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가 동시에 발생했다. 또 보수진영은 연일 문 대통령의 사드 배치 임정 등을 들어 '안보관 불만'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문 대통령 측은 보수측의 안보 불감증 해소와 보수진영의 '북풍(北風)' 공세를 차단하고자 국민 아그레망을 출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 아그레망은 단장인 정 실장을 포함해 총 24명의 전직 외교관으로 구성돼 있다. 구성 명단을 살펴보면, 조병제(61·외시 15회) 전 말레이시아 대사가 국민 아그레망 간사를 맡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교통상부 차관을 지낸 이태식(72·외시 7회) 전 주미 대사와 참여정부에서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이수혁(68·외시 9회) 전 독일 대사, 신봉길(62·외시 12회) 전 요르단 대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동영 의원 추천, 열린우리당 합류
참여정부 시절 韓美 FTA 조연 역할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과 친분 형성
외교 자문 '국민 아그레망' 단장 맡아
한반도 4強 특사 파견 핵심적 역할
韓美정상회담 조기 개최 이끌기도
새 정부 北核·사드 문제 등 현안 쌓여
국가안보실 강화로 정 실장 책임 커져

향후 국민 아그레망은 문 대통령 외교 자문그룹으로서 광폭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단순히 자문그룹을 넘어서 실제 입각을 통해 그 세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현 전 독일대사는 민주당 문미옥 비례대표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의원직을 승계했다. 앞서 이 전 대사는 4·13 총선 당시 비례대표 15번에 이름을 올렸다. 문 대통령은 이 전 대사를 직접 영입하면서 “최고의 통일·외교 전문가”라고 평한 바 있다.

조병제 전 말레이시아 대사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외교부 차관 후보로 꾸준히 하마평에 오르는 등 새 행정부에서 외교 분야 중책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받는다.

◆아시아 정당 지도자-정부 고위직과도 두터운 인맥 자랑 = 정 실장은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어 정치권 인맥도 넓은 편이다. 특히 정 실장이 정치권에 입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정몽준 국무민당의 의원과 친분이 두텁다. 정 의원의 친분은 1990년대 중반 실장이 외교부 공보관을 맡으면서 공보관과 출입기자 관계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인연으로 정 의원이 2004년 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 열린우리당 의장을 맡았을 때 정 실장을 추천해 17대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외교 조언자로 역할을 하면서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 현재 자리에 오르게 됐다.

또 정 실장은 오랫동안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공동 상임위원장 겸 사무총장을 맡으면서 아시아 정당지도자와 아시아 정부 고위직

들과도 두터운 인맥을 형성하고 있다.

정 실장의 외교부 인맥도 눈에 띈다. 대표적인 인물로 국가안보실 산하 신재현 외교정책비서관과 권희석 안보전략비서관이 꼽히고 있다. 외교안보수석 역할을 하는 남관표 국가안보실 2차장도 최근 임명돼 정 실장의 외교부 인맥으로 분류된다. 이밖에 정 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는 이중 사촌지간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외무고시 거친 정통 외교관
非軍출신 첫 안보실장 중책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외무고시(5회)를 거친 정통 외교관이다. 국가안보실 최초로 비군(非軍)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초대 안보실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2004년 외교부 공보관 시절 인연을 맺은 정동영 의원의 추천으로 열린우리당 비례 대표 10번에 배치되면서 제17대 국회에 발을 들였다. 외교관 출신 국회의원은 정 실장이 처음이었다. 정 실장은 국회의원 활동 당시 여당의 의원외교 활동을 이끌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에 미국 비자 발급 허가가 떨어지지 않자 정 실장이 미국 대사관에 항의해 비자 발급을 받아낸 일화가 전해진다.

참여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정에 조연했고, 이때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교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대선 때마다 문 대통령의 외교 맨두 역할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는 문 대통령 외교자문 그룹인 ‘국민안그레망’ 단장을 맡았다.

정 실장은 문 대통령 당선 후에도 새 행정부 외교정책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날 10월 1일 정 실장은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 자격으로 매슈 포틴더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NSC) 아시가 담당 선임보좌관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미 정상회담 초기 개척을 합치하고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에 특사를 파견하는 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정 실장은 경제와 외교부 장관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다자외교 최전선에서 공격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대북 유화파인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와 국가 외교전략의 균형을 맞추나갈 전망이다. 지난 16일 문 특보의 '미국 전략가들 전개 축소' 발언에 대해 정 실장이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경고한 대목은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정용욱 기자 dragon@

정용욱 기자 dragon@

주요 약력

◇1946년 서울 출생 ◇서울고·서울대 외교학과
◇외무고시 5회 ◇외무부 통상국장 ◇주미대사
관 공사 ◇주 이스라엘대사관 대사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통상교섭조정관 ◇국제노동기구
(ILO) 이사회 의장 ◇주 제네바 대사 ◇17대 국회
의원(열린우리당 비례대표)

1위
고급맛살 브랜드

2016 세계 골프랭킹 1위 / 리디아 고



**한성
기업**
Since 1963

Since 1963

“새롭게 부모 된 직원 더 챙겨라”... 팀장급에 공개 메시지

〈사내 게시판 공지사항〉

기획 여성친화 기업을 찾아 19 농심켈로그

농심켈로그는 시리얼 전문 식품회사다. 미국 미시간 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켈로그와 농심의 합작으로 1980년 3월 세워졌다. 자본의 90%를 미국 켈로그가 소유하고 있어 사실상 외국계 기업이다. 다만 농심이 유통부문을 담당하는 합작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1983년 9월 경기도 안성에 공장을 설립해 국내 최초로 콘푸레이크를 생산한 이래, 스페셜K, 아몬드푸레이크, 체크초코, 리얼그레인라 등 9개 브랜드 18가지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2012년에는 프록타앤드갬블(P&G)사로부터 프랑클스를 인수하며 사업을 확대, 매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농심켈로그는 여성 친화 기업을 넘어서 양성 평등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리천장이 두터운 국내 기업과 달리 여성 임원 비중은 50%에 달하며, 서울 본사의 경우 여성 직원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 금요일 5시 퇴근제 등 여성을 존중하는 다양한 제도가 운영 중이다. 2015년 12월에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농심켈로그 본사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포스코P&S타워 15층에 자리하고 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입구에 들어서면 은색빛 벽면 위에 붉은색 영문으로 적힌 'Kellogg's(켈로그)' CI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한쪽 벽면에는 약 30가지의 켈로그 제품이 3단으로 가지런히 진열돼 있어 마치 스낵 전시장을 연상케 한다.

농심켈로그는 여성 직원들이 모여 회의하거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다. 출산 여성을 위한 휴게공간인 '맘스룸' 등 여성을 위한 장치들도 곳곳에 보인다.

특히 눈에 들어온 건 사내 게시판에 붙은 '팀에서 새롭게 부모가 된 직원 지원하기' 글이다. 관리자 헬프데스크라는 상단 머릿글을 보니 팀장급 이상에게 보내는 공개 메시지다. 부모가 된 직원



송혜경 홍보팀 이사, 천미연 HR 상무, 김경은 파이낸스팀 상무, 최미로 마케팅 상무(왼쪽부터)가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사무실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시차출퇴근제 등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출산여성 전용 휴게공간 '맘스룸' 마련

여성임원 비중 50%... 차별 없는 역량평가

후배 양성 프로그램 '석세션 플랜' 운영

이 '일·가정 양립'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조직 차원에서 이해하고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유연근무에 따른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열린 커뮤니케이션으로 상호 신뢰 구축하기 △피플 매니저가 되기 위해 노력하기 △임원 상황에 대한 사례를 답습하기 등 4가지 구체적인 방법론이 설명돼 있다.

사무실 복도를 따라가면 '오픈 포 브렉퍼스트 (OPEN for Breakfast)'라는 뜻말이 걸린 공간이 등장한다. 글귀에서 알 수 있듯 테헤란로 고층빌딩 숲을 보면서 모닝커피나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는 장소다. 직원들 사이에선 구내식당이라는 뜻

의 '캔틴(canteen)'으로 불린다. 내부는 마치 가정의 부엌을 옮겨놓은 것처럼 꾸며놓았다. 대형 냉장고와 정수기, 싱크대 위엔 커피머신과 컵, 물병 등이 놓여 있다. 진열대엔 형형색색 시리얼이 담긴 붉은 통이 줄지어 있다.

송혜경 PR부문 이사는 "캔틴은 신제품을 비롯한 다양한 시리얼 제품과 우유, 두유, 주스 등 음료가 구비돼 있어 직원들이 아침사와 간단한 점심, 간식 등을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서 "사무실 내 가장 위치가 좋은 창가 쪽에 마련돼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쾌적하게 리프레시하기 좋다"고 밝혔다.

농심켈로그는 'PDP(Performance & Development Plan) 평가시스템'을 기본으로 성별에 상관없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해 남녀 임원 비율을 5대 5로 동등하게 만들었다. '석세션 플랜(Succession Plan)'이라는 후배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 차세대 리더도 육성하고 있다. 현재 직원에서 커리어 목표표를 세우고, 그에 따른 경력 개발 계획 등을 세심히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터뷰 천미연 농심켈로그 인사부문 상무

여성, 차별이나 편견의 대상 아닌 함께 성과 창출하는 동료로 봐야

『私心 없는 공정인사』 투명한 조직 만들어 차기 여성 리더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

“차별이나 편견 대신 조직의 성과를 창출하는 동료로서 여성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성 임원이 50%인 것은 놀라운 성과죠. 차기 여성 리더를 발굴·육성하는 것도 중요한 미션입니다. 조직원 모두가 좋은 환경과 문화에서 즐겁게 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위해 삶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조직을 만들고 싶습니다.”

천미연(사진) 농심켈로그 인사부문 상무가 자신이 속한 조직문화에 대해 남다른 자부심을 드러냈다. 여성 직원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원이 켈로그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조직문화가 신뢰와 존중의 태도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다. 남녀 구분 없이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이뤄지며,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는 일의 몰입도와 주인의식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왔다.

이 같은 조직문화를 만들어 낸 데는 천 상무의 역할이 컸다. 그는 1994년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24년간 인사영역 업무만 담당해온 인사통이다. 2009년 켈로그에 인사팀 부장으로 입사한 뒤 실효성 높은 정책과 제도로 일하기 좋은 회사를 만들고자 노력했다.

“인사는 사심이 없어야 합니다. 나 위주로 제도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공정한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원들이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하잖아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사심이 없을 때 진정한 성과는 피드백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식이 통하는 조직,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며 투명한 조직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야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가 될 거라 생각했어요.”

천 상무는 △동료를 보는 즐거움 △의미 있는 배움을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나가는 즐거움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있는 즐거움을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 더불어 조직원들이 이런 즐거움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조직 문화가 좀 더 유연해지고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닌, 실제 근무 환경에서 느끼는 체감도가 의미 있는 것이죠. 정책과 제도는 한번 만들면 끝이 아니라, 그 것이 시작이

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의미하고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만들어 꾸준히 실행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 상무는 켈로그의 최초 여성 임원으로 조직의 유리천장을 깬 주인공이기도 하다. 2011년 인사부문 이사로 승진했고, 2014년에 상무로 올라섰다. 이후 지속적으로 여성 임원이 발탁돼 현재 켈로그에는 전체 임원(8명) 중 절반이 여성(인사, 홍보, 마케팅, 재무)이다.

“스스로 자랑스럽고 뿌듯했죠. 첫 직장은 대기업이었음에도 신입직원 100명 중 여성은 고작 5명이었어요. 여직원이 장기적으로 커리어를 가져가는 것이 흔하지 않던 시대를 거쳐왔죠. 그런데 이제는 많은 여직원이 당당히 실력으로 인정받고 경력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때 기분 좋고 뿌듯합니다. 더 많은 여성 후배들이 자신의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현재 켈로그는 부문별 리더에게 여성 인력 확보와 육성에 관한 업무목표(KPI)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다. 여성 직원의 채용이나 승진 비율이 남성 직원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2020년까지 부장급 이상 직급에서 여성 비율이 50%가 되도록 한다는 목표다.

글/김민정·사진/고이란 기자 mj_kim@

임직원이 말하는 ‘일하기 좋은 우리 회사’ 3가지 이유

경력과 리더십만 있다면 유리천장은 없다

대다수의 기업에서 남성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재무부서에도 경력과 리더십이 인정되면 성별에 구애받지 않고 여성 임원을 발탁하는 농심켈로그의 인사정책이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여성 직원들이 잘 정착해 리더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기업문화가 좋습니다.

〈김경은 파이낸스부문 상무〉

‘출산휴가·육아휴직 당당하게’ 워킹맘 배려

아이를 등교시키고 회사에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차출퇴근제 운영을 비롯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당당하게 쓸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일과 가정의 양립이 존중되는 근무환경이 자랑거리입니다. 워킹맘들이 근무하기 좋은 환경이라 아이를 가진 여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허고은 인사팀 차장〉

멘토·멘티프로그램... 조직생활 든든한 힘

사내 직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우리 회사의 가장 큰 자랑거리로 꼽고 싶습니다. 업무와 취미 등 다방면으로 멘토와 상의할 수 있어 회사 생활에 든든한 힘이 되고 있어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개선안을 마련해가면서 즐겁고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줍니다.

〈이선인 홍보팀 대리〉

수천년을 이어 온 올리브잎의 생명력과 영양

“올레아에 담았습니다”

아주약품(주)

올레아는 올리브잎을 주원료로 만든 아주약품의 건강식품브랜드입니다

건조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으로부터 수천년째 넘게 강력한 생명력을 발휘하는 생명의 나무 올리브. 미생물과 세균으로부터 올리브나무를 방어하는 천연물질 올리브리핀 성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리브잎에는 올리브오일 보다 몸에 좋은 올리브리핀이 50배나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레아는 수많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입증된 올리브리핀의 과학적 효능을 바탕으로 최상급의 올리브잎만을 엄선하여 63년 역사 아주약품의 품질기준으로 만들어집니다

olea

아주약품 올리브잎 전문 건강브랜드

■올레아 주요제품 : 올리브잎추출액 | 올리렉스 | 올리렉스 키즈 | 올리렉스 로젠지 www.olea.co.kr ■제품 구입문의 | 상담 080-747-7070

화장품·식품·패션의 ‘블루오션’... ‘할랄’ 두드리는 ‘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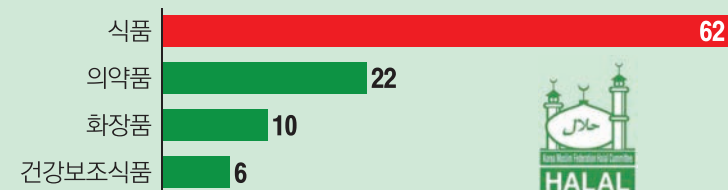
Hello! ASEAN

⑨ 中企, 히잡을 쓰다

중소기업계가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할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기초해 ‘신이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된 음식’이란 뜻으로 무슬림의 식품 섭취 기준이자 규율이다. 전 세계 할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1조8900억 달러이며 업계에서는 2021년까지 약 63% 증가한 3조 달러(약 3600조 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할랄 시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산업 진출에 집중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하지만 할랄 시장 진출은 인증뿐만 아니라 이슬람 시장에 진출해 현지 소비자의 인식까지 자리 잡아야 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할랄시장 제품별 비중 (단위: %)



세계 10대 할랄 식품시장

순위	국가명	금액(달러)
1	인도네시아	1549억
2	터키	1155억
3	파키스탄	1063억
4	이집트	775억
5	방글라데시	685억
6	이란	590억
7	사우디아라비아	479억
8	나이지리아	412억
9	러시아	370억
10	인도	348억

세계 10대 할랄 화장품 시장

순위	국가명	금액(달러)
1	인도	47억
2	러시아	35억
3	인도네시아	33억
4	터키	31억
5	말레이시아	28억
6	방글라데시	25억
7	이라크	20억
8	카자흐스탄	19억
9	프랑스	17억
10	이란	16억

할랄 식품 중 할랄 인증을 받은 식품시장의 규모는 약 41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정됨

먹거리부터 스킨케어까지 검사·인증제 할랄 시장 2021년까지 3조 달러로 성장

브랜드보다 상품 품질·신뢰 더 중요 중소기업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각광

◇할랄 시장은 화장품, 식품 등 다양 = 할랄 시장은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출 분야는 화장품, 패션, 식품 등 광범위하다. 무슬림이 먹고 마시는 모든 식품은 할랄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무슬림 지역은 섭취된 음식물이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이 된다고 믿는 풍습이 있기 때문에 식품은 할랄 시장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해당 식품이 할랄에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할랄 인증이 필요하게 됐으며 지역에 따라 인증 절차나 의존도는 편차

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슬람 국가에서 할랄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식재료를 할랄 재료로만 조리하고 무슬림이 운영하거나 주방을 맡아야 한다. 특히 관할 종교 당국의 정기 검사까지 받아야 한다. 이러한 정식 절차를 거쳐 할랄 인증을 취득한 업체는 입구에 할랄을 뜻하는 로고를 표시하게 된다. 다만 체인점이나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개별 식당에선 할랄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식재료는 체인 내부, 조리와 판매는 체인점과 가맹점에서 실시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인다.

화장품 산업은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다. 피부에 접촉하고 제품에 따라 극소량 체내에 흡수될 수 있는 화장품은 스킨케어, 메이크업 제품, 헤어, 향수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약 7500억 달러로 할랄 시장은 이 중 54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된다. 할랄 시장 인증 화장품들은 대부분 이슬람 국가의 현지 브랜드인 경우가 많

다.

할랄 시장의 화장품에는 개·돼지, 그리고 라드, 젤라틴, 콜라겐, 글리세린, 태반, 혈액, 양수 등 인체성분, 수은과 납 등의 유해성분은 사용할 수 없다. 또 허용된 원료라 하더라도 비할랄 물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경우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할랄 화장품은 동물 실험을 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중소기업, 할랄 시장서 틈새 찾는다 = 국내 중소기업은 이슬람 문화권의 사회적 이슈에 맞춰 진출하고 있다. 특히 할랄 시장은 대기업 제품 여부나 브랜드보다 품질과 신뢰가 더 중요하게 작용하는 만큼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틈새 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전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기업 대덕랩코는 할랄 시장에 진출해 성공을 거둔 대표적인 중소기업이다. 대덕랩코는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알려진 할랄 인증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받은 곳이기도 하다.

이 회사의 화장품은 에탄올, 계면활성제, 실

리콘, 조함향료 등 독성물질이 전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무슬림 먼세점 입점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할랄 화장품으로 자리매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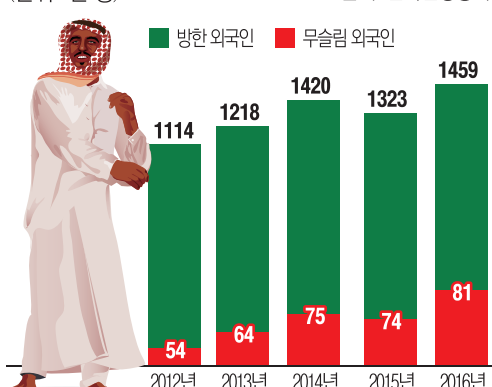
식품 장식물을 디자인하고 있는 ‘더베러푸드’ 역시 국내를 대표하는 할랄 시장 진출 기업이다. 2009년 설립된 이 회사는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초콜릿 장식을 비롯해 종이, 마랭, 클레이 등 다양한 소재로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더베러푸드가 할랄 시장을 처음 접한 2014년은 무슬림 진출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할랄 인증을 받는 데까지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되기도 했다.

할랄 인증을 받은 뒤 2015년부터는 말레이시아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매년 성장세가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할랄에 대한 관심이나 지원이 약한 편이다”며 “정부 주도로 할랄 시장 진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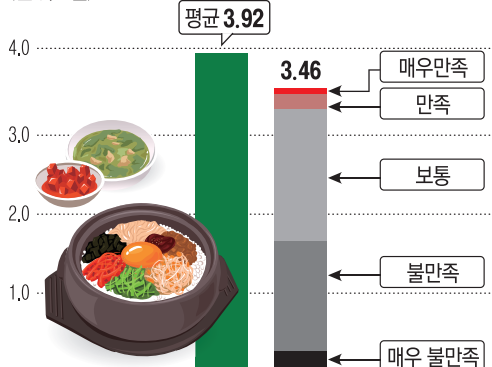
무슬림 관광객 방한 현황

(단위: 만 명) ※ 출처: 한국관광공사



한국 음식 만족도

(단위: 점)



갈 길 먼 ‘할랄 마케팅’

“시장은 넓은데 지원사업 분야는 좁아 의약·관광 아우를 정부부처 만들어야”

잠재적 소비자 전 세계 18억 명, 시장 규모가 2조 달러에 육박하는 ‘할랄 시장’이 신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농림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할랄 시장으로의 수출 규모는 9억1260만 달러(약 1조 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에 비해서도 8.8% 증가한 규모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와 중동 국가에서 할랄 인증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고, 태국, 대만, 일본 정부에서도 할랄 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정부도 발을 맞춰줄 때라고 강조한다.

우리 정부의 할랄 정책은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한식연)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식약처와 중기청, 공공기관인 코트라 등으로부터의 일부 지원이 덧붙여 이뤄지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할랄 식품 산업 육성이라는 큰 그림하에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 사업, 할랄 도축·도계장 사업, 외식

업체 리모델링 사업, 인증비용지원 사업 등 4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개소한 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는 할랄·코셔 등 식품 인증을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을 주업무로 하며 10여 명의 직원들이 할랄 수출상담실 운영, 시장정보 제공, 인증절차 지원 등을 수행한다.

센터가 사실상 주요 할랄 지원 기관이라고는 하지만 예산이나 인력, 지원 내용 면에서 기업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식품이 할랄 산업의 60%를 차지한다는 이유로 농림부 산하 한식연이 추진 기관으로 힘을 얻었지만 농림부 관할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에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할랄 시장에서 식품 영역 지원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 문제점도 있다.

한 할랄 전문가는 “이슬람 국가들이 할랄 인증

을 요구하는 품목이 식품뿐만 아니라 화장품, 의약품, 섬유, 관광, 금융 등의 영역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식약처나 농림부에서 화장품, 식품에 국한된 할랄 지원 영역을 통합해 전략적이고 장기적으로 할랄 산업을 끌고 갈 수 있는 범부처 차원의 추진체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해외인증지원사업에 관해 노장서 한국할랄산업연구원 박사는 “동남아는 특히 할랄 인증에 대한 인식이 중동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인 데다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할랄 인증이 의무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다.

노 박사는 이어 “할랄 수출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인증이 더 활성화돼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인증기관의 공신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할랄 시장 진입의 선행 조건인 인증이 해결되고 나면 다음에 기업이 부딪치게 되는 것은 현지 정보의 결핍과 현지 마케팅의 벽이다. 조영찬 할랄협회 대표는 “센터 홈페이지나 코트라 등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기업 입장에서 생동감 있는 현지 시장 정보보다기보다는 박제된 정보에 그친 경우가 많아 아쉽다”고 말했다.

임병용 할랄수출협회 사무국장은 “인증이 가

장 기본적인 전제이지만 현재 턱없이 부족한 마케팅 지원도 대폭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지원 사업을 만들기보다는 코트라나 중기청 등에서 할랄 분야 일기일부터 시행해온 다양한 수출기업 지원사업에서 할랄 수출 기업들을 위한 쿼터를 확보하고 늘려나가는 방법이 좋을 것 같다”면서 “살아있는 현지 시장 정보 제공, 바이어 발굴, 국내외 전시, 수출 상담회 등의 더욱 실효성 있는 마케팅 지원이 늘어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할랄 정책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참고할 수 있는 국가로 태국을 꼽는다. 조 대표는 “태국은 비이슬람 국가임에도 할랄 정책기관과 연구기관 두 조직은 이상적인 관계”라며 “총리령 문대하 내 할랄사이언스센터가 할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백데이터를 생산해 할랄인증 실행기관인 사이코(CICOT)에 제공하고, 사이코는 이를 바탕으로 인증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국가 지원 대신 네슬레 같은 현지 글로벌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 들어 할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한국의 경우 정부의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효점 기자 gradually@

나는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고 싶다

화제의
신간

스피치의 여왕이 전하는
세상 어디에도 없던 특별한 기술!

대한민국
말하기
교과서

리더들의
필독서

취준생들의
필독서

인생 역전의 비결
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라!

서미림 지음 | 232쪽 | 13,500원

“국가 생존 문제”... ‘生産性 높이기’ 팔 걷은 日

‘인구절벽’ 일본을 통해 본 한국의 미래

6년째 줄어 1억2693만명... 최고치보다 110만명 아래로
50년 뒤에는 30% 줄고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40%나
5명 중 2명이 노인... “이대로 인구감소 지속되면 산업 붕괴”

日 정부, 여성·고령층 취업 권장... 유아교육 무상화 추진
기업도 재택근무·외국인 채용... 도요타, 간호로봇 개발

장기 디플레이션과 약한 경제성장 등 ‘잃어버린 20년’을 거친 일본. 1억 명이 넘는 내수시장은 빈사 상태의 일본 경제에 마지막 구명줄이었다. 그러나 저출산과 고령화, 이민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으로 인구가 꾸준히 줄면서 일본은 이른바 ‘인구절벽’에 직면, 국가로서의 미래마저 불투명해졌다. 이에 일본 내에서는 정책 대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본 총무성이 4월 발표한 최신 인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점 일본 인구는 외국인까지 포함해 총 1억2693만3000명으로,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냈다. 인구가 사상 최대치였던 2008년과 비교하면 무려 110만 명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사망자 수에서 출생자 수를 뺀 ‘인구 자연감소’는 통계를 시작한 1950년 이후 가장 많은 29만6000명에 달했다. 15~64세의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3%로, 2차 세계대전 후의 혼란기였던 1951년의 60.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다. 반면 65세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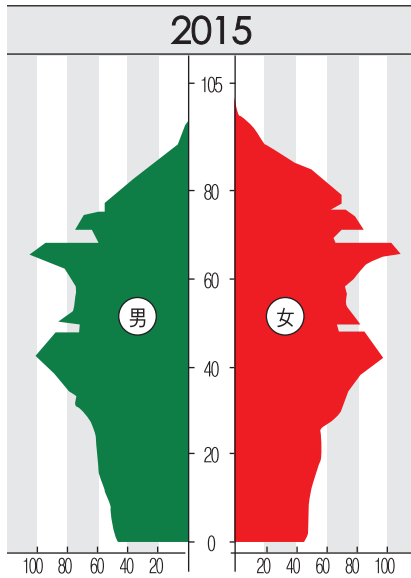
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27%를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구 구조와 관련된 전망은 더욱 어둡다.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는 4월 초 보고서에서 출산율이 지금과 같은 추세를 유지한다면 2053년에 인구가 1억 명 밑으로 줄어들고 2065년에는 인구가 2015년 대비 30% 감소한 8808만 명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 감소폭은 50년간 무려 40%에 달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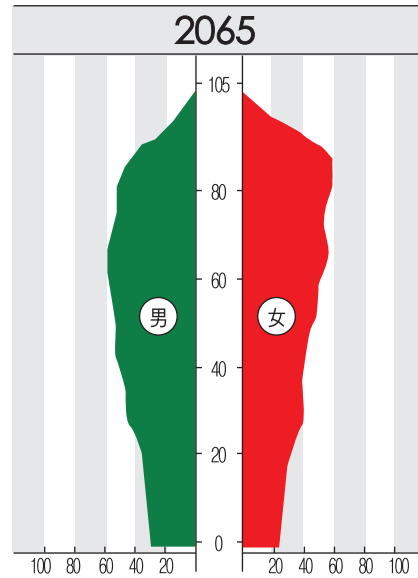
문제는 50년 뒤에는 노인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38%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인구 5명 중 2명이 노인이 되는 셈이다. 현재 일본은 2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 2.1명당 1명의 노인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 추세를 바꾸지 못하면 2065년에는 1.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게 되는 사회가 된다. 사회보장 부담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과 사회보장제도 개선, 여성과 고령층 취업

일본 인구 피라미드 변화 (단위: 만 명)



※ 출처: 니혼게이지아신문



권장 등 인구절벽 탈출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업들도 재택근무와 외국 인재 채용, 주4일 근무제 도입 등 인구절벽에서 벗어나고자 갖가지 아이디어를 펼치고 있다. 이미 건설과 교통, 의료 등의 분야에서 유효구인배율이 3배를 넘고 있다. 사람 한 명당 구인기업이 3곳 이상이라는 얘기다. 이대로 인구 감소가 지속되면 많은 일손을 필요로 하는 산업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 과감한 생산성 향상과 혁신이 절실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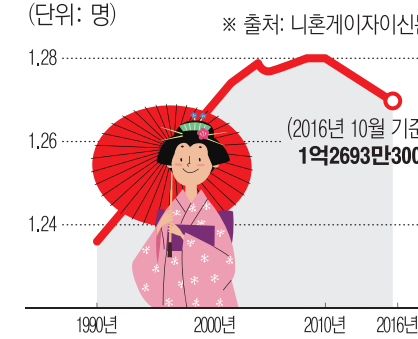
의료와 양로 분야에서는 정보기술(IT)의 활용이나 간호로봇의 도입이 진행되고 있다. 도요타자동차는 최근 뇌졸중 등으로 쓰러진 환자나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의 주행을 돕는 시스템 임대 서비스를 시작해 재활용 로봇 상용화에 첫발을 내디뎠다. 고령화 여파로 일본의 자동차 판매는 2013~16년 8.5% 감소했다. 이에 도요타는 늘어나는 노인 수요를 맞출 수 있는 로봇으

로도 눈을 돌리게 된 것이다. 물류업체들도 일부 서비스 폐지 등 일손 부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여성이 일하면서 가계 경제력을 유지하면서도 육아가 가능한 환경을 서둘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면 출산율도 상승해 생산가능인구도 감소 추세를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베 정부는 대가아동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린이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다리는 아동들이 늘면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과 출산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커지자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약 73%인 25~44세 여성 취업률이 오는 2019년에 80%를 넘도록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고 남성 육아휴직을 추진한다.

여당인 자민당 의원들은 보육과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는 이른바 ‘어린이

일본 인구 추이 (단위: 명)



보험’도 추진하고 있다. 실현 가능성은 확실하지 않지만 여성의 노동 참여를 위해서라면 대담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고령자 취업을 확대하려는 목적에 정년을 인상하거나 배우자 공제를 축소해 전업주부를 최대한 줄이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생산성 향상도 절실한 상황이다. 일본 생산성본부는 2015년 기준 일본의 노동생산성은 구매력평가(PPP) 환율 기준 7만4315달러(약 8442만 원)로 주요 7개국(G7) 중 가장 낮다고 분석했다. 일본 내 각부에 따르면 현재 속도로 인구가 줄면서 생산성도 개선되지 않으면 경제는 2040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이 고착화된다고. 반대로 2040년 이후에도 경제성장률을 1.5~2.0%로 유지하려면 1억 명 인구를 유지하고 생산성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일본이 G7 내 최고인 미국을 따라잡으려면 지금보다 생산성을 1.6배 높여야 한다.

한국 등 고령화의 뒷에 빠진 다른 국가들은 인구절벽에 직면한 일본의 대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이 이들 국가에 ‘타산지석(他山之石)’이 될지 ‘반면교사(反面敎師)’가 될지 판가름날 시간이 많지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高齢化 시대... 노인들의 오아시스 된 ‘편의점’

#아마모토(75) 씨는 매일 아침 산책을 나왔다가 편의점에 들러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고 집으로 돌아간다. 점심 때쯤 되면 근처 음식점이 아닌 편의점으로 향한다. 반찬을 고르는 재미가 쏠쏠한데다 도시락 종류도 꽤 다양해 일부러 식당에 갈 필요를 못 느낀다. 나온 김에 마실 것과 간식거리도 장바구니에 담는다. 편의점은 슈퍼마켓보다 좁지만 어지간히 필요한 건 다 있어서 다리가 불편한 아마모토 씨에겐 오아시스 같은 존재다.

반찬 사고 공과금 수납 대행
점심 때도 식당 대신 편의점
거동 불편한 노인 안성맞춤
50세 이상 고객 꾸준히 증가
업계도 서비스 품목 다양화



도쿄의 한 세븐일레븐 매장에서 나와 자전거를 타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

블룸버그

인구 4명당 1명꼴로 노인인 일본에선 언제부터인지 편의점 풍경이 달라졌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편의점에서 쇼핑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과거엔 편의점이라 하면 주로 역 주변이나 도로변 등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 24시간 영업을 하고, 고객층도 맞벌이 부부나 독신자 등 주로 젊은층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주택가에 촘촘히 침투해 일용품에서부터 식음료와 즉석식품 판매, 서적, 금융, 공과금 수납 대행, 티켓 판매 등 각종 생활 편의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등 말 그대로 ‘편의점(convenience store)’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종합적인 서비스는 특히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 반경이 크지 않은 노인들에게 크게 어필된다. 그래서인지 편의점의 고객층도 고령화하고 있다. 일본 최대 편의점 체인인 세븐일레븐이 매년 발표하는 업계동향 보고서 ‘투자자 데이터북’에 따르면 28년 전인 1989년만 해도 50세 이상 고객 비율은 9%에 그쳤지만 2013년에는 그 비율이 33%로 늘었다. 반면 1989년 약 35%였던 20대의 비율은 19%로 쪼그라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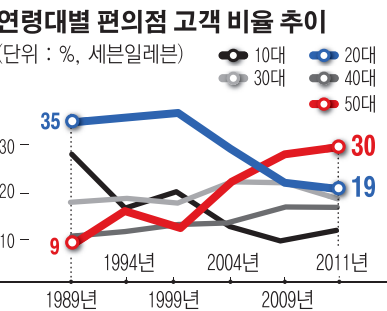
이처럼 노인층의 편의점 이용이 늘어난 까닭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구성에 변화가 생긴 영향이 크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개인시간이 증가해 편의점을 이용할 기회가

많아졌다. 동일본 대지진 후 물품 부족 시기에 편의점을 이용하면서 단골이 된 노인도 적지 않다. 또한 슈퍼마켓보다 매장 크기가 작고, 쇼핑 시 매장 안을 이리저리 걷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시세와 비슷하다. 1980~90년대 편의점을 이용하던 젊은층이 그대로 중년이 된 영향도 있다.

그러나 편의점을 이용하는 노인 인구가 늘어난 가장 큰 이유는 편리한 접근성이다. 대형 슈퍼마켓은 교외에 있어 자동차를 타거나 한참 걸어야 하지만 편의점은 어디든 있다. 한 조사에서는 편의점을 이용할 때 이동수단으로 ‘도보(52.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자동차가 23.3%, 자전거는 19.4%였다.

이에 편의점 업계도 고령사회에 맞게 노인인구가 많은 지역에 적극 진출하거나 제품 구성도 중년 이상을 타겟으로 하는 등 서비스 품목을 다양화하고 있다. 업계의 노인 고객 쟁탈전이 치열해지는 것은 물론이다.

일본 서클K는 노인 간호에 주목, 2011년부터 매장의 단말기를 이용해 현직식과 성인용 기저귀, 지팡이 등 노인 간호용품 약 200개 품목을 주문할 수 있게 했다. 주문한 제품은 나중에 매장에서 받는 구조다. 패밀리마트는 50~65세 고객층이 타겟. 이 회사는 ‘어른들의 편의점’이란 타이틀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매장을 도쿄 다이칸야마에 열었다. 이곳에는 일본식 파스타



와 과자 등 고령자를 위한 제품을 다른 곳보다 많이 들여왔다. 로손의 경우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물건을 받는 로손 매장에서 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로손이 운영하는 신선식품 매장 ‘로손스토어100’은 양배추, 양파, 당근 같은 채소에서부터 육류와 반찬류 등 모든 제품을 100엔에 판매한다. 도시락 값은 100엔은 아니지만 가장 비싼 게 300엔이다.

세븐일레븐이 자랑하는 서비스 ‘세븐 말’은 도시락뿐 아니라 편의점에서 파는 제품을 500엔에서 100엔 시 무료로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365일 24시간 간단히 주문할 수 있으며, 주문은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하다. 받는 장소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상관없고, 퇴근길이나 외출 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매장에서 직접 가져갈 수도 있다.

아내와 둘이 산다는 한 75세의 편의점 고객은 “하루 두 번 매장을 찾는다”며 “고령자만 사는 집에는 편의점이 좋다. 집에서 가까워 좋다”고 말했다. 일본의 한 유통 전문매체는 “편의점은 각 지역의 세세한 요구에 부응하기 쉽다”며 “슈퍼가 교외로 옮겨갈수록 대형화하는 가운데 향후 노인에게는 편의점이 생활의 거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수경 기자 sue6870@

구인난 日기업들 ‘교육지책’

휴일에 他 회사 근무 허용

경쟁 업체끼리 공동 배달

‘주4일 근무제’ 속속 도입

청년 ‘취업난’에 시달리는 우리나라와 달리 이웃나라 일본은 ‘구인난’으로 아우성이다. 일본 내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교육지책을 내놓으며 생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달 30일 일본 후생노동성은 4월 유효구인배율이 전월보다 0.03포인트 오른 1.48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974년 2월 일본 경제가 1차 오일쇼크 직전까지 누렸던 호황기 때 이후 최고치다. 유효구인배율이란 일정 기간 일자리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값으로 구직자 대비 구인기업 비율을 나타낸다. 그만큼 일본기업으로서의 일자리는 남아도는 구인난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다.

일본 1위 택배업체 아마토는 전자상거래 발달로 택배 수요가 폭증하고 있지만 회사 성장세가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이 업체는 일본 전체 물류 시장의 5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택배 취급 수가 전년 대비 8% 증가한 약 18억7000만 개였다. 택배 수요가 2년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회사는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택배기사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택배 물량이 폭증하다 보니 외부 운송업체에 일부 배송을 위탁하는 비용이 발생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기에 저렴한 운송비 역시 회사의 채산성을 떨어트리고 있다. 이에 4월 초 회사는 택배 기본요금을 27년 만에 인상하기로 했다. 최대 거래처였던 미국 아마존닷컴의 당일 배송서비스 위탁 서비스도 철회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가운데 직원의 부담이 크다는 판단 때문이다.

일손 부족은 아마토만의 문제가 아닌, 일본 산업 전반을 괴롭히는 고질병이 됐다. 일본 식품업체인 닛신식품과 주류·음료업체 산토리홀딩스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다 6월 중순부터 홋카이도 일부 지역에서 제품을 공동으로 배달하는 교육책을 내놨다. 일본에서 서로 다른 업종의 업체들이 공동배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운송을 담당할 일손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유통망을 공유해 배송의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노린 전략적 선택이다.

인재 확보 차원에서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 택배업체 사가와규빈은 3월 말부터 도쿄와 야마나시 현에서 주4일 근무 택배기사 모집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변형근로시간제’를 활용해 하루 근무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늘리는 대신 근무일을 하루 줄이는 방식이다. 휴일에는 다른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 야후재팬은 4월부터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주 4일만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패션 브랜드 유니클로의 모회사인 패스트리 테일링은 이미 2월 전부터 지방 매장 직원 1만 명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일본 특유의 ‘24시간 영업문화’도 사라지고 있다. 24시간 불을 밝힌 편의점과 패밀리 레스토랑 등은 일본의 경기 호황과 근면의 상징과도 같았다. 하지만 인구 감소로 24시간 영업으로 얻는 수익보다 인건비와 관리비 지출이 오히려 더 많아 운영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일본 패밀리 레스토랑 ‘로얄호스트’는 내년 1월, 24시간 영업을 전면 종료하기로 했다. 로얄호스트를 운영하는 ‘로얄홀딩스’ 사이트에서 전국 223개 점포 중 24시간 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단 2곳으로 조사됐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일본 유효구인배율 추이



밤·표고·대추·산양삼 등 ‘숲속 보물’ 수출 올해 5억달러 번다

농업이 미래다 ④ 해외 진출하는 토종 임산물

올해 4월까지 1억4115만달러 작년보다 30% 가까이 성장
산림청 특화지역 추가 지정… 생산·마케팅 등 패키지 지원

식품연구원 협력 전략상품 R&D… 하반기 기술이전 추진
해외 주요 박람회서 홍보관 운영 바이어와 상담기회도 제공

“숲속에 외화(外貨) 있다.”

올 들어 4월까지 임산물 수출액은 1억4115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7% 증가했다. 이 기간 새털을 제외한 전체 임산물은 1억2617만 달러로 전년 대비 39.7% 급증했다. 단기임산물도 1035만 달러로 13.2% 늘었다.

산림청은 현장 중심의 수출정책 추진으로 올해 임산물 수출 목표액을 5억 달러로 설정했다. 목제품과 산양삼, 대추 등 주력상품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적극 공략할 계획이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임산물 수출은 4억1960만 달러로 전년보다 10.5% 증가했다. 대내외 시장 여건 악화로 전체 수출이 5.9% 감소하고, 농식품은 5.9% 증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다. 지난해 임산물 수출은 밤, 감, 표고, 섬유판, 제재목 등 주요 품목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목재류는 1억8582만 달러로 1년 전보다 9.6% 늘었다. 석재류는 8889만 달러로 41.7% 급증한 데 반해 단기임산물은 1억4488만 달러로 2.1% 감소했다. 이에 전체 임산물(새털 제외) 수출액은 3억2833만 달러로 14.5% 증가했다.

산림청은 이 같은 실적을 토대로 올해 수출액 5

억 달러를 목표로 잡았다. 목표 달성을 위해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에 나섰다. 임산물 주산지에 공동 시설·장비를 지원해 수출일관 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니터링·컨설팅,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생산에서 수출까지 패키지로 지원하게 된다.

현재 수출특화지역 지정은 충남 부여(밤, 표고버섯)와 청양·경북 청도(감) 등 4개소가 운영 중인 가운데, 경남 하동(밤)과 충남 충주(밤)에 추가로 지정, 운영할 예정이다. 개소당 총사업비는 2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임업진흥원은 모니터링·컨설팅을 통해 관리 강화에 나선다. 상시 모니터링 및 연말 사업 평가 수행, 특화지역별 맞춤형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해외박람회 참가를 포함한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도 지원한다.

해외 한국식품 유통망을 활용한 임산물 수출도 추진한다. 기관 간 협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안테나숍 및 해양수산부 앵커숍에 임산물을 입점시켜 거래선을 확대할 계획이다. 8월까지 해외 유통망을 직접 방문, 협의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농식품부 안테나숍은 5개국 18개소, 해수부 앵커숍은 7개국



수출특화지역 지원체계

지원 단계	수출품 생산 (지자체)	수출경쟁력 강화 (산림조합)	해외시장 개척 (AT)	수출 활성화 (산림조합)	평가·관리 (임업진흥원)
지원 내용	수출용 공동 시설·장비 지원으로 수출품 생산 일관 시스템 구축	수출품에 대한 이력관리, 위생검사, 해외인증	해외 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수출상품화, 시험수출, 해외관측	- 수출물류비 - 수출보험	- 모니터링 - 컨설팅 - 생산자단체 - 가공업체

2016년 임산물 수출 현황

(단위: 만 달러, 괄호는 전년 대비 증감률 %)

1억8582 (9.6)	1억4488 (-2.1)	8889 (43.1)	4억1960 (10.5)
목재류	단기 임산물	석재류	합계

10개소 규모다.

임산물 수출 지원팀도 가동한다. 수출 애로 현장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기업에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는 산림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산림조합, 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이 현장 애로 사항을 듣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1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컨설팅 자문위원이 향후 1년간 멘토링으로 사후관리까지 지원하게 된다.

산림청은 임산물 수출장비 구입도 지원하고 있다. 수출업체가 선도 유지 등 품질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할 경우 지원에 주고 있다. 앞으로는 신규시장 개척, 유망품목 개발, 해외인증 취득을 할 경우 가점을 부여해 수출유망업체에 대해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단 중목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5년 내 3회 이상 지원받은 업체는 제외키로 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대응한 수출전략상품 개발과 연구개발(R&D)은 한국식품연구원이 맡았다. 농촌경제연구원과 협동으로 밤, 감, 표고버섯, 산양삼 등 주요 수출품목별 전략과 포장·유통법 개발, 해외마케팅 방안 수립 등을 추진하고 있

다. 개발된 상품 및 포장·유통법은 임업인에게 홍보하고, 적절한 사업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8월에는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전략상품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 내 기술 이전을 통한 수출 상품화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올해 해외 주요 박람회에서 임산물 홍보관을 운영해 바이어 상담 기회를 제공한다. 수출유망품목발굴대회를 개최하고 수상업체를 선정해 해외박람회 참가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수상업체에는 해외 홍보·마케팅을 연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정필 기자 roman@

日엔 대추스낵, 동남아엔 꽃감, 홍콩엔 건표고… 현지 입맛 저격

산림청, 지역별 판매 전략·품목 다변화 위해
11월까지 수출협의회별 공동마케팅 추진도

산림청이 올해 임산물 5억 달러 수출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품목과 지역별 판매 전략을 짜고 있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밤은 단가 상승과 검역 등에 대한 지원이 맞물려 수출이 전년보다 17% 증가했다. 감 수출은 협의회 공동마케팅 등을 통한 집중 지원으로 아시아권 시장이 확대되면서 91% 급증했다.

표고버섯은 수출특화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늘고 내수 단가는 하락해 43% 증가했다.

섬유판은 일본계 가구공장으로서의 수출 증가와 국내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7% 늘었다. 제재목의 경우 대(對)일본 ‘인테리어 등 건설자재용’ 경쟁력 강화로 27% 증가했다.

반면 수출 단가 하락 및 해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일부 품목은 수출이 감소했다. 새털은 2014년 가격급등 이후 조정 국면에 따른 단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합판은 이라크·카자흐스탄 등에서 컨테이너 바닥용 및 건설자재 수요가 줄어든 영향을 받았다. 건축목공의 경우 건설수주

마감 등 건설경기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했다.

향후 임산물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세계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로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한류 및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으로 동남아시아 등으로의 수출은 호전될 전망이다.

일본은 전반적인 수출 여건이 개선돼 은행열매, 대추스낵 등 신규품목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북미 지역은 민간소비 등 내수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 유지가 전망되므로 홍보·마케팅을 강화해 주류시장으로 진

출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림청 분석이다.

홍콩과 대만의 경우 표고버섯의 안정적인 수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표고버섯 시장개척 활동을 통한 판로 확보를 통해 건표고의 수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에 발맞춰 우리나라 임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 지역이다. 이에 현지인 입맛에 맞는 꽃감, 감말랭이 등 감 가공식품에 대한 수출 확대가 전망되고 있다.

산림청은 지난해 수출유망목제품 선발대회 수상품목 등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베트남, 미국 등 주요국 수출에 필요한 국가별 정보를 수집해 전략을 개발 중이다. 또 수출조직 육성을 통해 수출협의회 공동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4월부터 11월까지 수출협의회별 해외공동마케팅으로 판촉 및 수출상담회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을 통해 수출 기반을 마련하고 품목을 다변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국산 메밀로 맛을

“재료가 정직해야 맛도 정직합니다.”

국내산 메밀을 원료로 정직하게 생산하여

여러분의 식탁에 건강한 먹거리를 올리겠다는 일념,

(주)봉평농원의 이유있는 20년 고집입니다.

앞으로도 정직한 재료로 건강한 먹거리만을 만들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품】부침류: 메밀부침가루, 찰수수부침가루, 찰수수부침이, 감자부침가루, 감자수제비가루, 메밀국수, 메밀국수, 메밀비빔국수, 메밀소바, 메밀칼국수, 찰수수국수, 메밀냉면, 메밀비빔냉면 기타: 메밀미숫가루, 식곡미숫가루, 봉평춘미숫가루, 메밀쌀, 메밀차, 통메밀차

www.bongpyung.com

메밀꽃필무렵 봉평춘

검색

전국 대리점 모집 !! ☎031-323-0052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진동길 18-10 Tel. 031.323.0052 / 033.333.8942 Fax. 031.323.0473

【주】봉평농원

中 A주, MSCI 신흥지수 편입

중국A주가 '3전 4기' 끝에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네셔널(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되면서, 증권업계가 국내 증시에 미칠 여파 및 향후 전개 방향에 대해 분주히 주판을 튕기고 있다. 전문가들은 외국인 자금 유출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상승세인 코스피의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큰 영향 없다” 금융당국, 선제 대응 나서 = 코스피지수는 국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반영하듯 2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21일 급락 출발한 지수는 장중 2350선을 하회한 후, 반등해 전 거래일 대비 0.49% 내린 2357.53에 거래를 마쳤다. 수급주체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1818억 원, 1887억 원어치를 각각 내다팔았다. 특히 국가지자체는 1474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시장의 출렁임이 심상치 않을 조짐을 보이자 금융당국도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회의에서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된 데 대해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MSCI 신흥국지수에서 중국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0.73%포인트 증가한다. 이에 따라 한국물 비중은 0.27%포인트 축소될 전망이다. 유출 가능 자금 규모는 최저 6000억 원에서 최대 4조3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6000억 원은 패시브 자금만 고려한 것이고, 4조3000억 원은 액티브 자금과 패시브 자금을 합산한 결과치다.

“국내 증시에 제한적 영향...상승세 이어질 것”

외인 1818억·기관 1887억 매도 ‘출렁’
금융당국 점검회의 열어 선제적 대응
“신흥국지수서 中 비중 0.73%P 늘 것”

실제 편입은 내년 5월 이후에 이뤄져
전문가들 “국내 증시 펀더멘털 견조해
변동성 확대 주식 싸게 살 기회” 낙관
한국,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 충격 미미
국내 외국인 투자 늘며 유인 요건 줄어

◇업계 전문가 “주식 싸게 살 기회” 상승세 낙관 = 증시 전문가들도 중국A주의 MSCI 지수편입이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고승희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중국 A주의 MSCI 신흥국지수 편입은 악재 요인이지만, 국내 증시의 상승세를 훼손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과거 뱅가드 펀드 사례를 거론했다.

뱅크 펀드는 글로벌 상장지수펀드(ETF) 운용사인 뱅가드그룹이 운용하는 펀드를 통칭한다. 2013년 뱅가드 펀드가 벤치마크지수를 변경하면서 한국은 신흥투자국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됐



고공행진을 보이던 코스피 지수가 2360선 아래로 뚝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8.6원 오른 1144원에 거래를 마쳤다. 21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는 코스피 지수가 전거래일 보다 11.70(-0.49%) 내린 2357.53을 나타내고 있다.

다. 이에 국내 증시에서 대규모 패시브자금이 이동함에 따라 1월부터 6월까지 약 9조3000억 원의 매도 물량이 출회했다. 주 평균 4000억 원의 순매도가 출회한 것.

고 연구원은 “이 기간 코스피지수는 외국인 매도 물량이 출회되는 시점에서는 부진했으나 이후 빠른 회복세를 나타냈다”면서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이 견조한 상황 속에서 MSCI 신흥국 비중 조

절에 따른 변동성 확대는 오히려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중국 A주의 실제 지수 편입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국내 증시에서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는 진단도 나왔다. 변경록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수 편입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편입은 2018년 5월 정기변경 이후에나 이뤄진다”면서 “실제 편입대상으로 예정된 중국 A주 시가

총액의 5%만 부분 편입으로 걸정된 만큼,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과거 MSCI 신흥국지수에 편입됐던 한국과 대만의 경우 시가총액의 100% 편입까지 각각 6년, 9년의 시간이 소요되었던 점을 감안해 볼 때 중국 역시 점진적으로 편입 비중을 늘릴 것”이라면서 “한국 증시의 단기 자금 유출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MSCI 선진국 편입 실패에... “굳이 갈 필요 있나” = 한국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실패에 따른 실망감은 크지 않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지속되면서 선진국 시장 진입 유인이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예은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중국이 신흥국지수에 들어왔지만, 신시장 자체에서는 우리나라의 비중이 높은 상황”이라며 “지금 외국인 자금이 계속 들어오는 긍정적인 상황이다 보니 굳이 선진국 시장으로 갈 필요가 있느냐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진입 실패에 따른 실망감도 적다”고 전했다.

금융위 역시 MSCI 선진국지수 관찰대상국 편입 문제와 관련해 한걸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정은보 부위원장은 “정부가 지난해 밝힌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방경제라는 우리 경제의 특성과 외환시장 안정성 등을 고려할 때 MSCI의 요구사항을 단기간 내 충족하기 쉽지 않은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

증권가 별별랭킹

덩치 커진 미래에셋대우, 직원 수도 ‘최고’

KDB대우·미래에셋證 합병 총 4771명

NH투자 2815명·KB證 2677명 뒤이어

국내 10대 증권사 중 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미래에셋대우로 조사됐다. 다만 합병 과정에서 임원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자기관본 기준 국내 10대 증권사가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의 직원은 총4771명으로 집계됐다. 리테일 인력은 2098명, 애널리스트를 포함한 본사영업이 1124명 등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대형사인 옛 KDB대우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합병해 공식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임원 수는 크게 줄었다. 2015년 말 기준 미래에셋증권의 임원은 98명, KDB대우의 임원은 39명이었는데 합병 이후 101명으로, 4분의 1가량이 줄었다.

직원 수 2위에는 NH투자증권이 이름을 올렸다. 1분기 말 기준 NH투자증권의 직원 수는 2815명으로, 2015년 말 3036명보다는 221명 줄어 들었다. 본사영업이 530명에서 540명으로 소폭 늘었지만, 리테일이 1743명에서 1569명으로

10대 증권사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2017년 1분기 분기보고서 기준

순위	증권사	임직원 수	순위	증권사	임직원 수
1	미래에셋대우	4,771	6	삼성증권	2,197
2	NH투자증권	2,815	7	하나금융투자	1,571
3	KB증권	2,677	8	대신증권	1,554
4	한국투자증권	2,382	9	메리츠증권	1,492
5	신한금융투자	2,359	10	키움증권	596

크게 감소했다.

현대증권과 합병을 통해 대형사로 도약한 KB증권이 3위를 차지했다. 1분기 말 기준 KB증권의 직원 수는 2677명으로 집계됐다. 리테일 인력 1254명, 본사영업 477명, 본사관리 946명이다. 이 밖에 △한국투자증권(2382명) △신한금융투자(2359명) △삼성증권(2197명) 직원이 2000명이 넘었고 이어 △하나금융투자(1571명) △대신증권(1554명) △메리츠증권(1492명)이 뒤를 따랐다.

온라인 전용증권사인 키움증권은 직원 수가 596명에 불과해 10대 증권사 중 가장 직원 수가 적었다. 하지만 리테일사업을 줄이며 인력 감축을 한 대부분의 증권사와 달리 키움증권은 최근 1년 동안 10%가량 직원 수를 늘려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희진 기자 heejin@

거래소, 엔씨 ‘공매도 의혹’ 조사 착수

20일 공매도 거래량 전일보다 3배 늘며 시총 1조 증발...모니터링 강화

하루 만에 시가총액 1조 원이 증발한 엔씨소프트에 금융당국이 공매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한국거래소가 종합한 공매도 체결 현황에 따르면, 엔씨소프트는 전일 공매도 거래량 19만 6256주로 하루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공매도 거래대금 역시 762억 원으로 전일 대비 약 500억 원이 늘어났다.

금융투자업계는 엔씨소프트의 주가가 11% 이상 급락한 가운데 공매도가 급증하자, 미공개 정보가 새어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한미약품 사태로 부각된 공매도 시행제도의 허점도 다시 불거지며 시장의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엔씨소프트 최고개발책임자인 배재현 부사장이 보유 중이던 주식 8000주(0.04%)를 지난주 전량 매도한 사실이 드러나며 의혹은 더 확산됐다.

이에 거래소 시장감시부는 추가 및 매매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즉각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엔씨소프트의 경우 아직은 공매도 과열증폭으로 지정된 만한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 거래소의 설명이다. 거래소 한 관계자는 “추가 급락 속 공매도 거래량이 급증한 만큼, 통상적인 감시 체계는 진행할 것”이

엔씨소프트 주가 추이 (단위 : 원)



라며 “내부 조사 결과 투자자의 피해 사실이 포착된다면 금융감독원과 공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엔씨소프트의 대차거래잔고가 최근 늘어난 것도 공매도 의혹에 대한 하나의 신호라는 게 증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실제 금융투자협회 대차거래내역을 보면 1일 8169억 원 수준이었던 엔씨소프트의 대차거래잔고는 19일 1조 원 이상 치솟았다. 같은 기간 1만7007주였던 대차거래체결 수량은 11만8814주로 급증했다. 이종우 IBK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통상 대차거래잔고가 늘어나면, 정황상 공매도를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sun@

난 마술을 믿어...!

MUSICAL

위대한
The Great Gatsby
캐츠비

프리뷰 30%
(6월 23일 ~ 30일까지)

조상웅 | 김지휘 | 이우종 | 천지(탄탈) | 정태우 | 김지철 | 유권(블락비) | 현성(보이프렌드)
강웅곤 | 김민주 | 양서윤 | 유주혜 | 해나(마틸다) | 김주연 | 원종환 | 최연동 | 김아영 | 가희

2017.06.23 FRI - 10.01 SUN
대학로 유니플렉스 2관
공연문의 1544-1555 / 1666-5795

뉴로스 “원천기술 앞세워 폐열발전 집중”

정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맞춰 관련사업 준비 기술연구소 통해 열병합 발전시스템 기술 보유 국내 공단에 폐열 발전소 공급 적극 추진 나서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국내의 대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폐열발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로스가 원천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로스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맞춰 주력사업으로 키우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22일 뉴로스는 최근 포스코에 지열발전용 터빈 발전기 납품 계약 건에 대한 공급이 마무리돼 이를 토대로 공장 폐열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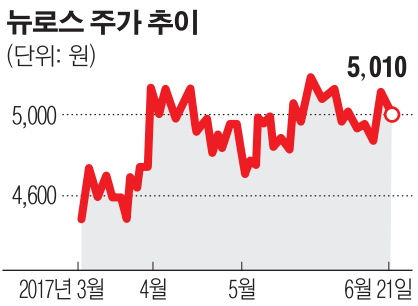
폐열발전은 공장가동에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해 전력설비 효율을 높이는 전기생산 시스템이다. 태양열, 풍력,

조력, 수력발전소처럼 전기를 1차 생산하는 기존 설비와 달리 전력 효율을 높이는 2차 생산을 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에 걸맞은 방식이다.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폐열발전 시장에 주목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은 한 국전력과 함께 지난해 세계 최초로 폐열(廢熱)을 이용한 차세대 발전설비 원천기술을 개발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 중이다.

엑세스에너지도 국내 폐열회수 발전시장의 공략을 추진 중이다. 뉴로스는 산하 기술연구소를 통해 마이크로터빈의 열병합 발전시스템의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이 기술을 적용해 포스코(홍



해지열발전 프로젝트)에 약 22억 원 규모의 지열 발전용 터빈 발전기 납품 계약을 수주해 공급이 마무리 단계이다.

뉴로스는 국내 지열발전 지역이 제한적인 것과 지열과 폐열의 기술적 차이가 적어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공단에 폐열 발전소 공급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국가적 지원이 시너지를 내면 향후 주력 사업 분야로 키우겠다는 의지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

인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되는 것을 계기로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이 40년 만에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 에너지 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큰 그림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국가적인 탈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유니스, 해인 등도 기대감을 높였다. 원전 해체 관련 사업을 하는 오르비텍, 에스앤다블유도 주목받았다.

한편 뉴로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1.99% 증가했다. 매출액도 44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8% 늘었다. 뉴로스는 이전까지 투자가 이뤄진 새로운 사업 부문에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우람 기자 hura@

희림, 208억 규모 설계·감리용역 수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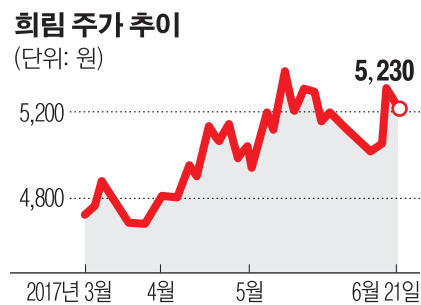
KBS 미래방송센터 심사 점수 1위 오스텍 연구소·고덕5단지 등 계약

글로벌 건축설계 및 CM 감리업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가 방송, 연구, 주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약 208억 원 규모의 설계 및 감리용역을 수주했다.

희림은 KBS 미래방송센터 설계용역, 오스텍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신축공사 설계용역,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감리용역, 송도 8공구 M1-1, 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 건축감리용역 등 약 208억 원 규모의 설계 및 감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KBS 미래방송센터 건립사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제작 인프라 구축과 한류 확산, 국가 재난방송 주관사로서의 공적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다. 희림은 방송시설 설계 경험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디자인과 수요자 중심의 현실적인 설계안을 제안했으며, 그 결과 심사위원과 직원투표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아 수주에 성공했다.

오스텍임플란트 중앙연구소 신축공사는 지하 2층-지상 10층 규모로, 글로벌 기업인 오스텍임플란트의 분산되어



있는 연구소를 통합하는 사업이다. 연구 중심의 미래지향적 복합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서울 마곡지구 내에 위치하며, 희림은 수많은 전문 연구시설 설계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수주에 성공했다.

고덕5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번지 일대에 위치한 고덕5단지를 재건축하는 프로젝트로, 뛰어난 입지와 쾌적한 주변환경, 우수한 교통과 교육환경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재건축 단지다. 앞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 19개동, 총 1745가구 규모로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송도 8공구 M1-1, 2블록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인천 연수구 송도동 8공구 M1-1, 2블록에 지하 3층-지상 49층, 공동주택 8개동, 총 2230가구와 오피스텔 4개동, 1242실 및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서는 대규모 사업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新재생 에너지 특허 100여개 보유 에이치엘비파워, 구회사 덕에 미소

올 초 인수 ‘루비’ 성장동력 기대 에너지저장장치 제작 1세대 기업

에이치엘비파워 자회사인 루비가 모회사인 에이치엘비파워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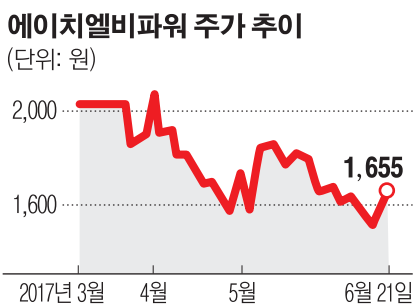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내의 특허 1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는 루비는 한국전력을 비롯해 일본 등에 공급했으며 복합화력 관련 국책 과제를 수행하기도 했다.

22일 에이치엘비파워는 “자회사 루비는 한전 변전소, KTX, 일본 등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기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며 “에너지 관련 세계 특허와 100여 개의 국내특허를 보유 중”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 전문기업으로 올해 초 에이치엘비 파워에 인수된 루비는 1985년 글로벌 기업으로 배터리 관련 전문 회사인 독일 바르타의 한국 지사로 시작해 2009년 법인 설립된 이후 ESS를 설계 제작해 온 우리나라 ESS업체 1세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루비의 강점은 다량의 세계 특허와 BMS 기술이다. 100여 개의 특허 가운데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R2 버전은 모듈 방식이 아닌 셀 단위 제어 방식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 중인 기술이다.

기존의 BMS 시스템이 가진 셀(Cell) 간의 언밸런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기술을 통해 배터리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



키며, 셀 교체 등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주어 ESS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임장윤 에이치엘비파워 대표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의 특성상 전력 생산의 불균형을 보완해주기 위해 ESS는 필수적”이라며 “최근 ESS의 원가 중 대부분을 차지했던 셀 가격이 하락하면서 설치에 따른 진입 비용이 감소하고 있고, ESS 설치에 따른 REC 가중치 부여 등 정부의 지원 정책에 힘입어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에이치엘비파워의 주력 제품인 발전소용 덤퍼가 원자력, 화력 발전의 축소에 따른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화력발전소의 축소와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는 예측된 부분이라, 우리는 기존 화력발전소의 탈황설비와 LNG 복합화력 발전 분야의 점진적 확대에 주목해왔다”며 “산자부 국책사업으로 복합화력용 디버터 덤퍼(Diverter Damper)를 개발해 공급해왔기 때문에 LNG 발전 분야가 확대된다면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산업용 계측기 개발 ‘우진’ ‘탈원전 정책’ 수혜주 주목

고리 1호기 정지 발표 직후 22%↑ 신원성 노내핵계측기 공급 계약에 이틀째 올라·폐로산업 진출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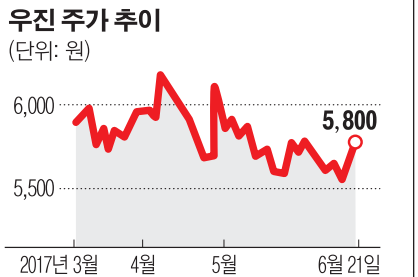
산업용 계측기 개발·제조 전문기업 우진이 ‘탈원전’ 흐름 속에 주식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우진은 폐로 산업 진출 등 사업 다각화 검토도 하고 있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우진은 새 정부가 고리원전 1호기의 영구 정지를 공식 발표한 19일 장중 한때 전일 대비 22.52% 올랐다. 원전교체용 계측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한국형 원전의 설계업체인 한전기술에 계측기를 독점 공급하는 우진이 수혜를 볼 것이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날 우진은 한국수력원자력과 21억7400만 원 규모의 신원성 1, 2호기 노내핵계측기(IC)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한 번 더 주목받았다. 매출액 대비 2.01%에 해당하는 크지 않은 매출 규모였지만, 원전 관련주를 찾고 있던 주식 시장에서 눈길을 끌었다.

우진의 주가는 19일 전일 대비 1.8% 오른 5650원에 마감한 데 이어 20일에도 전일 대비 2.48% 오른 5790원에 장을 마감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우진의 원자력 계측기는 올해 1분기 매출 68억6700만 원을 기록하며 매출 비중 59.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매출 191000만 원(2.07%)에 비해 크게 증가한 규모다. 원자력 계측기의 작년 연간 매출은



238억 원으로 전체 매출 비중 가운데 51.07%에 달했다. 전년 194억5200만 원(37.13%)보다 22% 증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자력 계측기의 매출 분포는 대부분 3~4분기에 몰려 있지만, 올해 1분기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 예상했던 계측기 납품 건이 올해 초로 이월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건설원전 수요가 느는 한편, 가동원전 수요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신고리 12호기와 신원성 12호기가 가동을 하고 나서 교체품이 나오는 시점이 되면서 매출이 증가한 부분이 일부 있다”고 덧붙였다.

우진은 탈원전 기초 속에서 사업 다각화를 통한 새 먹거리 발굴에도 나서고 있다. 우진은 원자력발전소용 계측기를 핵심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이외에 철강산업용 자동화장치, 설비진단시스템, 유량계 및 유량시스템, 신소재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발전뿐만 아니라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회사가 수행하고 있는 여러 분야에서의 사업적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캠시스,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설계 특허 취득

제품 불량 방지 생산수율 향상

휴대폰용 카메라모듈 전문기업 캠시스가 카메라모듈의 생산수율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설계기술을 확보했다.

22일 캠시스는 카메라모듈의 생산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카메라모듈 설계 기술에 대해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최근 휴대폰 카메라의 고화소 트렌드에 따라 카메라모듈의 핵심 부품인 이미지 센서가 민감해지면서, 미세한 제조 공차(오차)에도 사진의 외곽이나 모서리가 어둡게 나오는 비네팅(Vinetting)

현상 등이 발생해 고도의 공정기술과 품질관리 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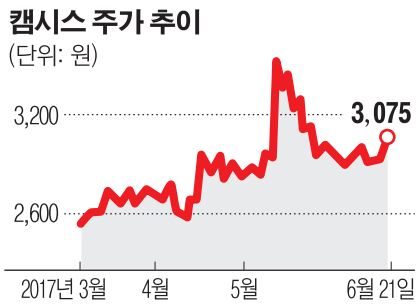
캠시스가 특허 받은 이 기술은 렌즈배럴을 고정하는 부품인 하우징의 구조에 리브(돌기)를 추가하는 카메라 모듈 관련 기술이다. 이를 이용할 경우 이미지 센서의 장착 과정에서 공차가 일부 발생하더라도 렌즈배럴과의 광축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게 해, 제품 불량을 방지하고 조립공정을 용이하게 만들어 준다.

박영태 캠시스 대표이사는 “휴대폰용 카메라모듈도 20M급 고화소 카메라, 듀얼 카메라와 같이 점차 고사양화해 차

별화된 기술력 및 품질관리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확보한 특허기술 등을 바탕으로 카메라모듈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사와의 기술 협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캠시스는 삼성전자 향 카메라모듈 공급 물량을 전담 생산하는 베트남 공장의 생산라인을 이번달 초 증설 완료했으며, 갤럭시S8 시리즈의 인기에 힘입어 전면 카메라모듈의 공급 물량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전기차 사업 기반 구축도 강화하



고 있다. 2017 서울모터쇼에서 4륜 승용 초소형 전기차(PM100)를 선보이는 한편 14일에는 영광군 대마산단 부지에 생산공장 건립을 위해 전남 영광군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캠시스의 첫 양산모델인 PM100은 내년 2분기에 출시한다.

남주현 기자 jooh@

바이온, 로레알에 화장품 패키징 공급

3300만장 규모...이달부터 생산 年 100억 이상 매출 발생 예상

바이온이 글로벌 1위 화장품사 로레알에 3300만 장에 달하는 패키징을 이달부터 공급한다.

22일 바이온에 따르면 회사는 잇코스메틱으로부터 패키징 제품의 샘플 테스트를 완료해 이달 중으로 본격 생산에 들어간다.

잇코스메틱은 미국 지역 방송 앵커가 2008년 아파트에서 창업해 세계 10대 메이크업 브랜드로 성장한 기업으로 지난해 세계 최대 화장품 기업 로레알로부터 12억 달러(약 1조3000억 원)에 인수돼 로레알 그룹의 브랜드가 됐다.

바이온 관계자는 “잇코스메틱 패키징 공급을 통해서만 연간 1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 초기임에도 대형 화장품 기업에 제품을 공급하게 돼 보유 레퍼런스를 통한 향후 사업 성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바이온이 패키징을 공급하는 제품 중 하나인 컨피던스인어크림(CONFIDENCE IN A CREAM)은 현재 잇코스메틱 판매 톱(Top)10에 꼽히고 있어 패키징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CSA코스믹, 한국화장품, 코리아나 등과 함께 화장품 관련주로 꼽히는 바이온은 지난달 31일 인쇄패키징 공장의 완공식을 갖고 사업을 시작했다. 글로벌 인쇄장비 업체 하이텔베르그(Heidelberger Druckmaschinen)의 최신식 자외선(UV-Ultraviolet) 인쇄장비를 도입해 경쟁력을 확보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이래오토, 회사 지분 절반 中 투자자에 매각

상하이항천기차기전에 51% 팔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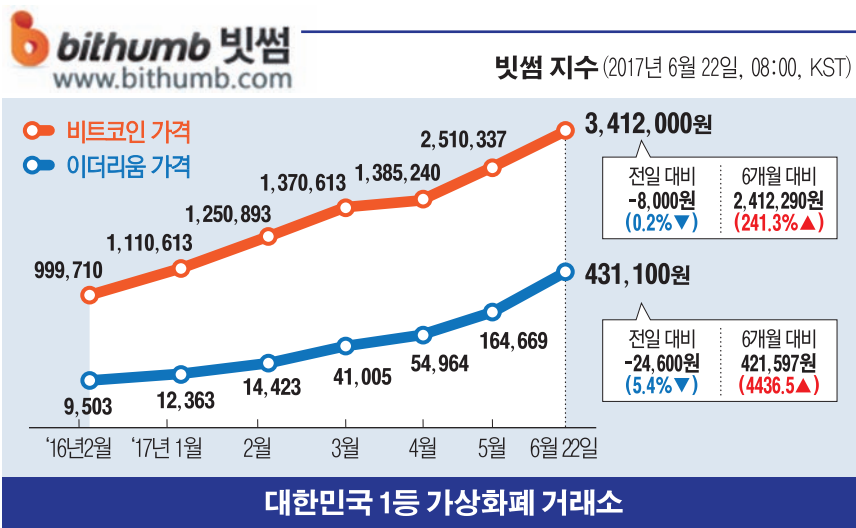
국내 증권 자동차 부품회사인 이래오토모티브시스템(옛 한국네파이)이 회사 지분 51%를 중국 투자자에 매각한다. 공조사업 부문 강화와 함께 투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래오토의 대주주인 이래cs와 이래엔에스는 회사 지분을 중국 ‘항톈(航天)과학 기술그룹(CASC)의 자회사인 상하이항천기차기전(HT-SAAE)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르면 7월 본계약을 체결

할 예정이다. 투자유치 금액은 3000억~4000억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래오토가 지분을 매각하는 부문은 공조사업 부문이다. 당초 이 회사는 공조사업을 물적 분할한 뒤 HT-SAAE와 합작사를 설립하려 했다. HT-SAAE는 과거 네파이의 중국 합작사였던 SDAAC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이들은 주요 고객인 체너르모터스(GM)에 공조부품 공급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합작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이래오토 노조의 반대로 분할 매각이 아닌 지분 투자로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우리모두의에어컨 _ 5

미 용 실 의 무 풍 이 야 기

시어머니께서 미용실을 하시는데
머리카락 날릴까봐 에어컨도 못 트셨어요
무풍에어컨으로 바뀔드리고 나서는
바람 없이 시원하게 일하시고
손님들도 기분 좋게 머리고 가시니까
진작 바뀔드릴 걸 그랬어요~

- 우리 모두의 에어컨 사연 콘테스트 중 조경미님의 이야기 -



모델명 : AR06M5170HNQ

삼성 무풍에어컨
우 리 모 두 의 에 어 컨



모델명 : AF25M9970BFR
에너지소비효율등급 : 1등급



QR코드로 자세한
제품소개영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풍냉방은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낮아진 후, 자연스러운 쾌적함을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실내 온도가 높을 때는 냉방 운전과, 희망 온도에 도달하면 무풍 기능을 선택하세요. *무풍냉방, 무풍제습, 무풍냉방은 무풍모드, 스마트패적 운전 시에만 작동됩니다.
*미국 냉공조학회(ASHRAE) 기준 Cold Draft(차가운 공기 흐름)에 의한 원하지 않는 물의 냉각)가 없는 0.15m/s 이하의 바람을 무풍(still air)으로 정의하며 국제공인기관 인터텍(Intertek) 평가 결과 쾌적 기준 만족

SAMSUNG